

# 만남

02

2019  
통권 541호

특집 |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2019년

2019년 새해 첫 날 ‘생명을 넣어 기르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예배가 2부에 걸쳐 드려졌다.  
신년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새해 첫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말씀과 기도로  
2019년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 표지설명



올해부터 주일 4부예배에는  
첫 예배를 드리는 새아기와  
새가정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있다.  
김운성 위임목사가 생애 첫 예배를  
드리는 아기를 위해 축복기도를  
드리고 있다.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 교회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1~2)

# 만남

## CONTENTS

### 이달의 말씀

기도가 출발점입니다 | 김운성 02

### 특집 生命을 낳아 기르는 교회

자라남, 그 자연스러움 | 김용신 04

2019 기도대각성 운동 | 목양부 09

새가족부의 사역과 비전 | 황광용 10

### 다음세대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 읽기 | 하지혜 12

빛으로 오신 주님의 소식을 찬양 | 이현지 14

### 땅끝까지 이르러

기도와 헌신으로 세운 군복음화의 요람 | 최윤미 16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봉헌 | 이재규 18

3.1운동은 기독교학교의 역사 | 신영순 19

### 영락의 울타리

기도할 수 있는데 | 이복순 22

이단의 거짓과 우리의 대처 | 임평호 24

치매의 증상과 예방수칙 | 정재면 26

### 야곱의 우물가

소그룹을 통한 리더의 성장과정 | 조은하 30

이제야 나오게 됐습니다 | 이해경 32

### 봉사와 섬김

연탄 나눔 다녀왔습니다 | 한수빈 34

교회는 넓고 봉사할 일은 많습니다 | 김영건 36

### 문화광장

존 스토퍼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 백성우 38

베드로, 일생을 통해 변화된 사람 | 박정관 41

2월의 상영작 42

### 교회소식

새해 신년예배 외 43

새가족 환영/세례 입교/유아 세례 50

2019년 제직부서 부·차장 54

영락역사자료/목회력 58

2019년 목회분담표 60

신임 교역자 프로필 62

편집장 레터 63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64

2019년 2월호 통권 541호

발행일 2019. 2.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장덕진 김경옥  
임대현 조성일 최윤미 서지원  
장창일 이준영 윤진경 우대권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 기도가 출발점입니다



김운성 위임목사

영락교회의 2019년은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영락기도원에서 열린 신년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올라와 함께하셨습니다. 1월 첫 금요일에 있었던 기도회에는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채우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어진 2019년 첫 영락가족특별새벽기도회는 전날 밤 기도회로 인해 피곤한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역시 본당을 가득 채워 기도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저력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막이 오릅니다.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일 기준으로 17주간이요, 날수로는 꼭 120일입니다. 120일 동안 영락교회의 전 성도들이 기도의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12만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려고 합니다. 한 시간에 1볼트가 충전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12만 볼트의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합니다.

꼭 이처럼 유치하게(?) 기도해야 하느냐고 생각 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서로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어린이처럼 순진하게 기도의 대열에 참여해 봅시다.

이를 위해 교역자들은 새벽기도회에 개근하고, 그 외에 하루에 한 시간을 더 기도하여 각자가 200시간 이상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만 시간 중에서 10분의 1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1월 7~8일 영락수련원에서 열린 교역자영성 수련회에서 “억지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교역자 개개인이 진정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책자를 2,3월용과 4,5월용 두 권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 읽고 묵상할 말씀을 제시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기도제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깊은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돋고자 합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진지한 기도를 위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를 위해 벤엘 예배실을 매일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개방하고, 본당은 목요일과 금요일 행사가 없는 시간에 개방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겸손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참된 기도는 자신의 무능과 연약을 알 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또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성결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부정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곁에서 보고 계심을 기쁨으로 즐기는 사람은 결코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를 성결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아울러 기도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능력이 기도의 관을 통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기도의 관이 튼튼하고 굵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야말로 부흥의 출발점이요, 원동력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모든 부흥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다향방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원산에서 시작된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영락교회의 기도 대행진이 2019년도 부흥의 출발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기도하지 못하던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불이 옮겨 붙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하면 이웃 교회들에게도 기도의 불이 옮겨 붙을 것입니다.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모습들 중 가장 눈물겹도록 소중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입니다.

축복의 120일 동안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세 가지쯤 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위에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락교회가 거룩한 기도의 향기를 하늘 가득히 하나님께 올려 드리길 소망합니다. 곱게 가슴에 모은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시길 기원합니다. **만남**

# 자라남, 그 자연스러움

영락교회 제자양육훈련부를 소개합니다

1.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5 단계 신앙성장로드맵’ 소개 ✓

2.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소그룹 전문 사역’ 소개(다음 호)



## I. ‘제자양육훈련부’ 신설 목적

### 1. 새가족에서부터 교회의 일꾼(리더)으로 세워지기까지의 ‘신앙성장로드맵’ 구축의 필요성

우리 교회의 경우 매 주일 교회를 찾는 새신자(타 교인, 초신자 모두 포함)의 숫자뿐 아니라, 교회가 정한 새가족 교육, 새가족 심방 등을 완전히 끝낸 뒤 등록교인으로 인정하는 새가족환영회를 거친 교인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정도만 정착해 출석하게 되더라도 수치상으로 교인은 매년 5%~7%씩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인 수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원인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원거리 이사, 휴가, 출장, 별세 등) 가장 주목해야 할 원인은, 유입되는 교인만큼 떠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교인들 중 타 교회의 양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년 성도들을 붙들고 정착시키며 신앙을 자라게 할 만한 체계적 양육, 훈련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양육과 훈련에 목마른 교인들이 영락교회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체계적인 영락교회 신앙성장로드맵을 구축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김응신 목사  
노원교구, 제자양육훈련부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 2. 전문적인 ‘소그룹 전문 사역’의 필요성

교회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묶어 외형적인 시스템만 조직해 놓았다고 해서 소그룹사역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단순한 형태 자체가 본

질적인 소그룹사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사역 속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체질변화에 대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철학이 공동체 전체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수많은 성경공부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 혹은 ‘자라남’, 그리고 ‘재생산’의 개념으로 건강하게 이어지지 못하기에, 삶으로 이어지는 데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삶에서 적용되는 영적인 성장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또한 소그룹사역은 결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으로 성장한 교회의 모델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무분별하게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 생명력 있는 본질적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치르고 지나가는 행사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각 교회의 상황에 적합한지 유무에 대해 사전에 많은 기도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소그룹사역은 한 번 해보다 가 안 되면 그만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본질적 사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만큼 사전에 기울여야 할 수고와 기도, 그리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행사 프로그램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효과가 크지만 영적 지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반면 소그룹사역은 처음엔 그 속도가 더딘 것 같으나, 꾸준히 공급되어 퍼져나가는 영적인 능력이 일단 힘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파급효과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놀랍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사역은 ‘일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역’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일 잘하는 리더를 찾는 건 사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혼의 멘토로서 사람을 길러내는 리더를 찾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기존 패러다임의 현실입니다. 모든 가르침과 영적인 공급이 오직 목회자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소그룹사역은 ‘관계’와 ‘영향력’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평신도 리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는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II. ‘제자양육훈련부’의 세 가지 사역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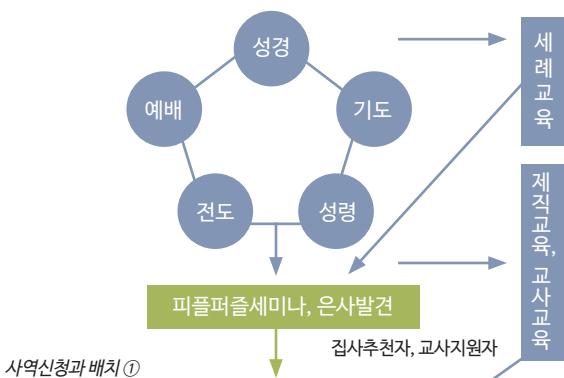
1. 새가족 등록에서부터 교회의 일꾼(리더)으로까지 성장해 나가는 교회 전체의 양육, 훈련 체계를 구축한 ‘신앙성장로드맵’을 제시하고 운영하는 사역
2. 영락교회의 상황과 특수성에 맞는 전문적 소그룹사역 방안을 마련해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소그룹 운용을 위한 제반 사역
3. 이상의 사역에 적합한 교재 및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연구 및 개발,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사역

### III.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5단계 신앙성장로드맵'

#### ▷ 1단계 - 『주님 만나기』(새가족 과정)



#### ▷ 2단계 - 『주님 알아가기』(양육 과정) - 핵심과정



#### ▷ 3단계 - 『주님 따라살기』(훈련 과정)



#### ▷ 4단계 - 『주님 섬기기』(사역 과정) ▷ 2단계 - 일반과정



#### ▷ 5단계 - 『주님 제자삼기』(재생산/계속교육과정)



#### ▷ 새가족 과정(1단계)

- 독립과정이 아닌 2단계 및 전체체계로 이어지는 커리큘럼
- 교구 및 구역 편성 기준 마련(새가족부)

#### ▷ 양육 과정(2단계) - 핵심 / 일반

- 5가지 양육과정은 분기 또는 반기별 상시개설. 어느 과정부터 시작해도 무방.
- 독립과정이 아닌 3단계 및 전체체계로 이어지는 커리큘럼
- 세례교육, 은사발견, 피플퍼즐 세미나는 1년 2차례(반기별) 개설
- 제직교육은 상반기 개설
- 세례교육 해당자는 5가지 양육과정, 은사, 피플퍼즐 세미나와의 중복교육 가능
- 피플퍼즐세미나, 은사발견세미나 후 교역자와 상담을 필한 후에 훈련과정(3단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추후 이 과정까지의 이수를 서리집사 추천의 자격기준으로 삼는다.

#### ▷ 훈련 과정(3단계)

- 모든 훈련과정은 반기별 개설
- 모든 훈련과정은 양육과정 선 이수 필수
- 각 훈련과정은 주중 여러 요일에 걸쳐 동시개설
- 3단계 이수 후 고역자와 상담을 필한 후 사역과정(4단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추후 이 과정까지의 이수를 구역장의 자격기준으로 삼는다.

#### ▷ 사역 과정(4단계)

- 사역과정은 더 개설될 수 있음. 현재 명시된 것은 최소한의 예
- 모든 사역과정/신앙과정은 상황에 따라 반기, 분기, 또는 수시 개설
- 각 사역과정은 주중 여러 요일에 걸쳐 동시개설
- 사역과정은 훈련과정 선 이수 필수
- 일반신앙과정은 등록교인 누구나 가능
- 추후 이 과정까지의 이수를 항존직피택의 자격기준으로 추가

#### ▷ 재생산 / 계속교육(5단계)

- 구역 또는 소그룹커리큘럼 교육
- 항존직분자 및 소그룹리더 계속교육
- 분기/반기별 특강 및 세미나 개설(방학기간을 활용)

## IV. 2019년도 2단계 양육과정 & 3단계 훈련과정 개설 시간표

### 1. 개설 일정 (각 분기별 8주)

- 1분기 : 3. 3.~4. 28.(4. 21. : 전교인 전도주일 휴강)
- 2분기 : 5. 19.~7. 7.
- 3분기 : 8. 4.~9. 22.
- 4분기 : 10. 13.~12. 1.



### 2. 2단계 양육과정 시간표

#### ▷ 핵심 과정

내 용	시 간	반 명				장 소	강 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일	08:10~09:00	성경	성령	예배	기도	봉사관 지하	임현우 목사
		성령	예배	기도	전도	봉사관 505호	조두형 목사
		예배	기도	전도	성경	선교관	전병주 목사
	09:40~10:30	기도	전도	성경	성령	봉사관 지하	최한윤 목사
		전도	성경	성령	예배	봉사관 505호	박지운 목사
	10:40~11:30	성경	성령	예배	기도	봉사관 505호	김응신 목사
	12:40~13:30	성령	예배	기도	전도	봉사관 505호	김정희 목사
주일	13:40~14:30	예배	기도	전도	성경	봉사관 지하	박성은 목사
		기도	전도	성경	성령	봉사관 505호	권혁일 목사
	14:40~15:30	전도	성경	성령	예배	봉사관 지하	황재영 전도사
수요일	13:00~14:00	기도	전도	성경	예배	50주년기념관 503호	김형찬 목사

#### ▷ 일반 과정

내 용	시 간	반 명	장 소	비 고
주일	11:40~12:30	구약반	봉사관 505호	김충섭 목사
	11:40~12:30	3040 반	봉사관 504호	박동진 목사
	14:40~15:30	신약반	봉사관 505호	남정열 목사
	08:00~09:20	영어성경반	봉사관 504호	
	10:30~11:40	중국어성경반	한경직기념관 지하	
	11:40~12:40	중국어성경반	한경직기념관 지하	
	12:40~13:30	일어성경반	봉사관 504호	
	15:00~16:00	일어성경반	50주년기념관 704호	
	12:45~13:45	불어성경반	봉사관 502호	

내용	시간	반명	장소	비고
주일	12:45~14:30	불어성경반	50주년기념관706-1호	
금요일	13:30~16:30	성경통독반	50주년기념관 503호	강승훈 목사
	13:30~14:30	성서지리반	50주년기념관 604호	

### 3. 3단계 훈련과정 시간표

내용	시간	반명	장소	비고
주일	10:40 ~ 11:30	소그룹 리더훈련	봉사관 404호	
	12:40 ~ 13:30	소그룹 리더훈련	봉사관 404호	
	14:40 ~ 15:30	소그룹 리더훈련	봉사관 404호	
목요일	10:30 ~ 12:30	소그룹 리더훈련	각 교구별 장소	2단계 핵심과정 포함

#### ☞ 소그룹리더 집중과정 (2단계 핵심과정 + 3단계 소그룹 리더훈련)

- 목요반: 오전10:30~12:20, 지정장소, 상반기 3/7~6/27, 하반기 9/5~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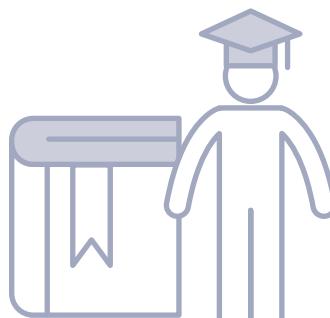
#### ☞ 소그룹리더 집중훈련반 국내 성지순례

- 1안) 1박2일 코스 : 증도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 4/22(월) ~ 4/23(화)
- 2안) 1박2일 코스 : 여수, 애양원, 손양원기념관, 4/22(월) ~ 4/23(화)
- 당일코스 : 용인순교자기념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 4. 수강신청 및 수료기준

#### ☞ 오프라인 등록 (주일)

- 2월 중 정한 기간 주일에 베다니광장 부스를 통해 신청
- 각 과목 정원제한 및 선착순 마감
- 기간 내 사전접수 원칙이며 당일 접수는 불가



#### ☞ 온라인 등록 (주중)

- 2월 중 정한 기간 내에 평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각 과목 정원 제한 및 선착순 마감
- 기간 내 사전접수 원칙이며 당일 접수는 불가

#### ☞ 수료기준

- 각 과목 7주 이상 출석 시 수료

# 2019 기도대각성 운동

##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라!”



영락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2019 기도대각성 운동’의 여정이 2월 1일 시작됩니다. 5월 31일까지 총 17주 120일간의 영적 대장정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면 기도를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영적 발전소가 되어서 온 성도들의 영적 에너지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의 영적부흥을 이루는 기도 대각성 운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기도 1시간 하시면 1볼트(Volt)를 충전한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대각성 운동은 우리 교회 전 교인이 120일간, 총 12만 볼트를 충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도를 통해 얻는 영적에너지(Volt)는 성도들의 영적 승리(Victory)와 영적 비전(Vision)을 이루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전 교인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기도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충전 장소로 우리 교회 △벧엘기도실(매일 오전 5시~오후 11시) △본당(목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금요일 오후 1시~오후 5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과 편찮으신 분, 멀리 사시는 분에 한해 가정 및 지역교회 기도로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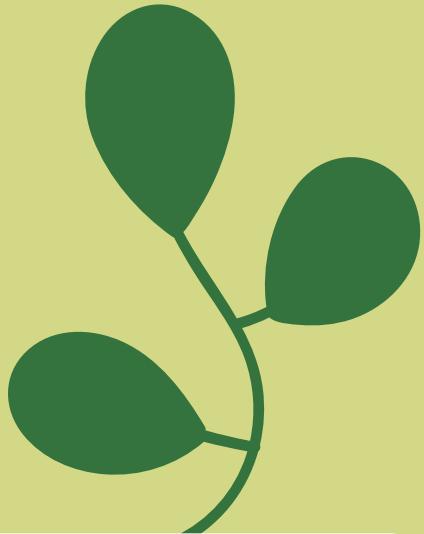
영적 에너지 충전을 위한 기도회 장소와 충전 내용	영적 에너지 충전을 위한 기도회	장소	시간	충전 볼트
	새벽기도회	본 교회	1	1V
	금요기도회	본 교회	1	1V
	개인별 자유기도	본 교회	1	1V
	영락기도원/영락수련원 기도집회	영락기도원/수련원	1	1V
	개인별 가정 기도(노약자, 장거리 거주자에 한함)	각 가정 및 지역교회	1	1V

위와 같이 기도하신 분은 교회에서 기도 쿠폰(1시간)을 발급받아 기도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면 매일 우리 교회 홈페이지 메인배너에 전 교인 기도 충전시간을 공지합니다.

기도대각성 운동을 돋기 위해 1월 한 달간 특별금요기도회가 열리며 2월부터 네 달 동안 중보기도 학교(4회)와 전도세미나(4회), 전도특강(2회)을 여는 한편, 각 교구별 릴레이 기도와 전도 활성화 모임을 진행합니다. 1월 13, 20, 27일(3주간) 기도 작정을 하시고 전도대상자도 함께 작정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아울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돋기 위하여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책>을 발간하여 베다니광장 부스 및 목양부 데스크(봉사관 1층)에서 판매합니다. **만남**

## 새가족부의 사역과 비전

새가족부의 섬김과 영적 돌봄의 사명은  
어렵지만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려움으로, 또 어떤 분은 설레임으로 믿음의 삶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낯설음’을 공통적으로 느낍니다. 교회의 문화,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많은 성도들, 신앙생활이 어색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많은 건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한,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기까지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 지냈던 새가족들도 계십니다. 삶에 대한 고민과 회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갖고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온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과 낯선 감정을 가진 새가족들을 섬기는 부서가 새가족부입니다.

### 새가족부의 사역

새가족이 교회에 처음 오면 접수처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됩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까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새가족부는 크게 3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광용 목사  
새가족부 전담

### ▶ 접수·환영팀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 대하는 분들은 접수·환영팀입니다. 주일이면 본당 앞과 교회 마당에서 환영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본당 앞 접수 부스와 봉사관 1층 새가족실에서는 등록 과정을 돋는 분들이 있습니다. 팀원들 모두 밝고 환한 미소로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 교육팀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들의 등록을 위해 5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구별로 양육위원들이 새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교회에서의 신앙의 출발을 돋고 있습니다. 5주간 새가족부의 교역자들은 기본적인 교리뿐 아니라,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까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을 심방하고, 여러 영적인 필요들을 채우고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 신앙정착팀

새가족들은 5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나면 본 교회의 등록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등록한 분들은 최소 3개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세례를 받을 때까지(최소 1년) 신앙정착팀에서 섬깁니다. 교역자와 봉사자들은 새가족들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며, 심방하면서 교회 정착을 돋게 됩니다.

## ‘생명을 낳아 기르는 사역’에 초대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출발을 하는 분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럼에도 영락교회를 찾고 있는 새가족들이 점점 느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잘 섬기고 돌보기 위해, 올해부터 새가족부는 한 부서로서뿐 아니라, 교구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5주의 교육과 교회 소개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돌봄과 섬김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팀과 신앙정착팀의 봉사자들은 마치 구역장처럼 새가족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의 과정에, 성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가족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곡식이 희어져 추수하여 곡간에 들이’고자 하지만, 일꾼들이 적습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과정은 참 어렵습니다.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참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직 이 일을 감당하는 이들만 누릴 수 있는 보람도 있습니다.

새가족부가 이 섬김과 영적 돌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의 자원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만남**



##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 읽겠습니다

- 고등부 고3 수련회를 다녀와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2018년 처음 고등부에 들어왔습니다. 1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갔고, 감사하게도 대학진학도 일찍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고3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고3 때 고등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3 수련회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허락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한 가지를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인이 된 후의 제 신앙생활을 계획하는 태도입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는 성인이 된 우리에게 다가올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그로 인한 믿음의 방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를 잊게 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후회, 자고 감까지 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제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창 입시를 준비하며 공부할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을 볼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합격하고 나니 하나님께 감사함은 느끼지만, 기도를 잊고 간절함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인이 돼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만 쫓게 되면 어떠하나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즈음에 목사님의 설교는 제 마음에 와 닿았고, 성찰하고 회개하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계획을 세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이상 읽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등부에 오기 전 저는 다른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성경은



**하지혜** 성도  
고등부 고3 졸업예정반



12월 14일~15일 1박2일간  
설악수양관에서 열린 고3수련회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한 번밖에 완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초등학생 시절 어린이 성경으로 읽었던 옛입니다.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공부라는 핑계, 고3이라는 핑계로 미뤄왔습니다. 계획하는 것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점점 바빠지며 성경을 읽는 것이 귀찮아지고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글을 처음 부탁받았을 때,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 솔직히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며, 하나님께서 제게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 2019 교회학교 겨울행사 일정표

교육부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2월 18일(월)~23일(토)
사랑부	
명절 민속놀이	2월 3일(주일)
봄맞이 성경학교	2월 23일(토)~24일(주일)
유치부	
가족초청예배	2월 10일(주일)
유년부	
봄맞이 성경학교 및 The Story Day	2월 23일(토)
초등부	
가족초청예배 #1	2월 3일(주일)
봄맞이 성경학교 및 The Story Day	2월 23일(토)
소년부	
봄맞이 성경학교 및 The Story Day	2월 23일(토)
중등부	
겨울수련회(50주년 기념관)	1월 25일(금)~26일(토)
고등부	
겨울수련회(영락기도원)	1월 24일(목)~26일(토)
졸업예배	2월 24일(주일)
베드로부	
리더수련회(LTC)	2월 1일(금)~2일(토)
학원전도	2월 23일(토)
대학부	
겨울수련회(영락기도원)	1월 30일(수)~2월 2일(토)
겨울단기선교	2월 7일(목)~16일(토)

# 빛으로 오신 주님의 소식을 찬양했습니다

-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다녀와서



영락보린원에서 새벽송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성탄 전날인 12월 24일 늦은 저녁,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새벽송을 위해 호산나찬양대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4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호산나찬양대는 매년 성탄절마다 중증 장애아동 요양시설과 보육원 방문을 시작으로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새벽 행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호산나찬양대 총무인 김원태(28) 성도는 “예전과 다르게 새벽 송을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에도 호산나찬양대는 선배들이 시작한 새벽송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아기 예수 나신 날을 기뻐하며 이웃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새벽송을 위해 모인 40여 명은 후암동 보린원과 애니아의 집을 찾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천사들의 노래가’를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아이들도 따라부르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만끽했습니다. 아이들의 찬양으로 대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대원들은 교회 마당에서의 새벽송을 시작으로 서울뿐 아니라 분당, 양주 등 다양한 지역을 돌며 영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호산나찬양대에서



이현지 성도  
호산나찬양대



새벽송 출발 전 교회마당에서  
김운성 위임목사의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했다.

만나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 두 가정을 방문해 더욱 뜻깊은 성탄 새벽송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새벽송에 참여한 박도혜(24) 성도는 “새벽송 초대 가정의 정성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그분들이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고 새벽송은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하며,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할 수 있는 행사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독립하면 내 손으로 직접 준비하고 맞이하고 싶다”라는 첫 소감을 밝혔습니다. 새벽송 마지막 가정은 4시 가까이 되어 방문했는데도 피곤한 기색 없이 반겨주셨습니다. 눈이 반쯤 감기긴 했지만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게 맞아주신 가정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년 새벽송을 초대해주시는 가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해마다 맞이하는데서 오는 익숙함과 더불어, 해를 더해가면서 성탄찬양의 감동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계셨습니다. 한 가정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새벽송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 가정이 살고 있는 판교의 밤하늘에는 서울에서 보지 못했던 별들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밀려오는 가운데, 별을 보고 주님 계신 곳을 찾아간 동방박사들의 이

야기가 생각나며 피곤함을 잊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성탄의 밤이 주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송을 경험하기 전에는 12월 24일에서 25일로 지나가는 그 시간이 딱히 의미가 없는 크리스마스였으며 연말의 한 날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송 일정을 함께 한 후부터는 성탄절이 있는 한 주가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설레는 천사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 천사들이 나타나 잠자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린 데서 유래한 새벽송은 성탄절 새벽에 성도의 가정을 찾아 주님을 찬양하던 한국 교회의 1950~70년대 정겨운 성탄절 문화였습니다. 성탄절의 상징이었던 새벽송은 시대와 주거형태가 바뀌고 청년들의 문화가 변하면서 점점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하고 허비하는 날로 인식되며 상업주의 문화로 변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 속에서도 새벽송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가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믿음의 전통에 또 다른 한 줄기 빛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만남**

# 3587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운 군복음화의 요람

-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봉헌식 현장을 찾아

## 군종목사 파송 60주년

## 군선교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

군선교의 요람인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의 새 예배당 봉헌식이 작년 12월 22일(토) 오후 1시에 거행됐다. 한국 교회 군종목사 파송 60주년 및 군선교 사역 7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립된 연무대군인교회의 새 예배당은 5천여 명의 예배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군부대 교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연무대군인교회의 새 예배당 건축은 지난 2009년 2월 26일에 결의한 후 총 3587일(약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대역사로 2012년 10월 10일에 새 예배당 건축 기공예배, 2015년 4월 30일에 착공예배를 드렸으며 작년 12월 20일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12월 22일 오후 1시 연무대군인교회 준공기념식을 시작으로 새 예배당 봉헌예배, 봉헌 예식과 예스 미션 청년

선교 비전선포식 순으로 진행된 봉헌식은 800여 명의 훈련병과 장병들을 포함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새 예배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특별히 군선교 사역에 심혈을 기울여 온 우리 교회는 김운성 위임목사와 은퇴 및 시무장로, 선교부 실행위원, 1·2여전도회와 여전도회 찬양대를 비롯한 여전도회 회원, 갈보리찬양대를 비롯한 음악부 찬양대원 등 628명의 성도가 이번 봉헌식에 참석했다.

## 다음세대 젊은 장병들의 영적 안식처

군선교연합회 총무 김대덕 목사의 개식사와 사회로 진행된 1부 준공기념식에 이어 새 성전 입장 후, 군악대 팡파르 속에 시작된 2부 봉헌예배는 소강석 목사(군선교연합회 법인이사, 새에덴교회 담임)의 인도로 진행됐다. 최수용 장로(예장합동총회 군선교회 사무총장)와 우리 교



회 김순미 장로(예장통합총회여전도회 전국연합회장)의 성경봉독이 있는 후 박신화 장로(갈보리찬양대 지휘자)의 지휘로 1200여 명의 민·군 연합찬양대가 ‘alleluya’ 찬양을 드리자 참석자들은 전체 기립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이날 봉헌예배의 설교를 맡은 곽선희 목사(군선교연합회 이사장)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시편 84:4~7, 고린도전서 4:16~17)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에 응답을 받고 새롭게 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 성전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면서 “이 성전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축원했다.

3부 봉헌예식에서 우리 교회 김운성 위임목사(예장통합군선교후원회장)는 봉헌기도를 통해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 구원 받게 하시며, 이 예배당은 아버지의 것이며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함”의 기도를 드렸다. 유만석 목사(군선교연합회 서기, 수원명성교회 담임)의 사회로 새 성전 건축 경과보고 영상시청, 김진영 장로(민·군 공동건축위원장)의 인사와 함께 김삼환 목사(한국교회

건축후원회 대표회장, 군선교연합회 부이사장)가 육군훈련소장 구재서 장로에게 열쇠 증정을 했고 노명현 군종목사(한국군종목사단장)의 봉헌선언이 이어졌다.

봉현식의 마지막 순서인 4부는 ‘한국 교회 청년선교 예스 미션(YES! Mission) 비전선포식’으로 진행됐다. ‘예스 미션’이란 기독 장병을 세우고 이들이 전역 후에도 지역교회와 대학 캠퍼스, 일터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사역으로, 이날 비전선포식은 지역교회와 대학 캠퍼스, 군대, 직장 등 4대 영역의 청년전도사역(청년복음화)을 위한 공동기도문 낭독이 있었고 애국가 제창으로 봉현식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 대한민국의 건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경직 목사는 ‘60만 국군장병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군 장병의 복음화를 위해 1972년 5월 29일 초교파적인 한국 교회 군선교 전문기관으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약칭 MEAK) 설립을 주도했다.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의 옛 예배당은 한경직 목사가 군선교 사역에 남긴 공로를 기념하고자 건립된 예배당으로 1987년 현당돼 지난 30년 이상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던 공간이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청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 청년들은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청년 전도의 산실이기도 했다.

이날 연무대군인교회 담임 김순규 군종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훈련병 찬양 순서에서는 800여 명의 훈련병들이 멋진 군무와 열창을 선보이며 예배당을 뜨겁게 달궜다.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에 올려 펴진 장병들의 ‘실로암’ 찬양과 기도가 기쁨과 감동으로 변하고 대한민국의 건아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후원이 계속 요청된다. **만남**

취재 최윤미 기자



##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봉헌의 의미

다음세대 청년복음화와 신앙전력화의 요람

충남 논산의 연무대 육군훈련소는 연간 1만2천여 명의 훈련병을 양성하는 우리나라 군 전력 강화의 산실이다. 훈련소 경내에 자리 잡은 연무대군인교회는 건립한 지 35년이 지난 2천여 쪽석의 구예배당에서 매 주일마다 7천여 명의 장병들이 3부로 나누어 주일 예배를 드려왔다. 그러나 인원에 비해 협소한 예배 장소로 인해 교회 계단은 물론 식당과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 건물의 노후화도 심해져 외벽에는 균열이 생겼고 우기에는 누수 현상마저 있었으며 예배 시간의 교체 때마다 협소한 통로시설로 인해 입장과 퇴장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게다가 영내 타 종교의 예배 시설이 기독교에 앞서 현대화됨에 따라 훈련병들이 타 종교의 시설들을 선호하는 경향마저 커짐에 따라 새 예배당 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2일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위원회가 구성됐고, 2013년 2월 1일에는 민군 공동 건축위원회(위원 12명)가 조직돼 건축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대해 감독과 통제를 맡았다. 2015년 4월 30일 정부가 제공한 1만5천평 대지 위에 건평 2천3백평, 5천여 석의 새 예배당 착공예배를 드렸다(실제 착공일은 8월 24일). 새 예배당의 설계 특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형상화했으며 전체 모양은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한 모습이다.

매달 2회에 걸쳐 각 4천여 명의 훈련병에게 행해지는 진중세례를 위한 편의도 고려했으며 젊은 장병들의 감각에 부합한 현대식 영상과 음향, 조명 시설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이밖에도 부속 건물로 3층 선교관과 함께 예수님이 사랑을 알리며 훈련병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40m 높이의 십자탑을 건축했다.

전체 공사비가 약 200억 원이 소요된 이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220여억 원의 건축헌금이 모아졌다. 이 건축헌금은 군목파송 교단을 중심으로 교계와 성도들의 정성으로 마련됐으며 614개 교회와 588개 단체의 9095명이 모금에 참여했다. 단돈 1만원 벽돌 한 장 값을 현금한 노년의 성도로부터 극동방송 생방송 모금을 통한 모금액 17억, 군인교회연합 30억 등 국내 주요 교회와 각 교단의 현금이 주를 이루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10억 원을 현금했고 은퇴장로님 한분이 5억 원, 은퇴권사님 한분이 1억 원을 현금하는 등 여려 성도님들의 참여가 이어졌으며 본 교회 은퇴장로회와 영락OCU(기독장교회)등이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이번에 봉헌한 새 예배당은 국가에 기부채납 했으며, 모금된 건축헌금의 잔여금은 연무대군인교회 유지 관리비로 사용할 방침이다. 새롭게 건립된 연무대군인교회 예배당이 향후 군선교의 밀알이 되고 청년복음화의 요람, 신앙전력화의 산실이 되리라 기대한다.

제공 이재규 은퇴장로(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이사장)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전국기독교학교대회

- 3·1운동은 기독교학교의 역사



‘나’는 자기 자신 한 사람을 이르나 ‘우리’는 내가 속한 여럿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에게 공동체를 위한 소명을 주시곤 했다. 한반도 복음화는 순교로부터 시작됐다. 선교사들의 희생이 쌓였다. 기독교인들이 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일던 성령의 바람은 한반도의 원산부흥운동, 평양대부흥운동에도 강력히 나타났다. 회개와 통곡과 부르짖음과 부흥이 있었다. 한반도 주변 열강의 싸움은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과 강제 병합으로 이어졌다. 약소국 한민족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분연히 일어섰다. 그것이 3·1운동이다. 3·1운동이 전국적 만세운동이 된 이면에는 교회와 연관된 전국의 기독교 학교들이 있다. 3·1운동은 기독교교육의 열매이기도 하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다. 영락교회는 3·1운동 때 일제에 항거한 기독교 학교들을 연구해,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는 시대정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원선교팀이 속해 있는 선교부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기정추)는 2월21일 우리 교회 드림홀과 베다니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기독교학교대회’를 열고 이 시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세워 가는 첫 걸음을 시작한다.

### 기독교학교들이 활약한 3·1운동

기독교를 빼고 서양사를 설명할 수 없듯 기독교를 빼고 한반도 근대사를 설명하기 힘들다. 3·1운동 당시 1,700만 명 가까운 한반도 전체 인구 중 기독교 인구는 1.5% 내외였지만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3인 중 16인이 기독교인이었다. 정체성이 분명한 기독교인들이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3·1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의 22%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당시 전국의 기독교학교 수는 832개교였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과 이듬해인 1886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경신학당을 효시로 30여 년 후 그처럼 늘어



신영순 권사  
강남교구  
선교부 학원선교팀장  
기독교학교정상화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난 것이다. 3·1운동은 교회와 연결된 이들 학교를 통해 전국적 규모로 전개됐다. 유관순이 다니던 이화학당 역시 이들 학교 중 하나였다. 태극기를 들어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던 학생들은 일제의 총칼에 체포되고 투옥되고 죽어나갔다. 자유는 기독교 정신이었다.

### 건학이념과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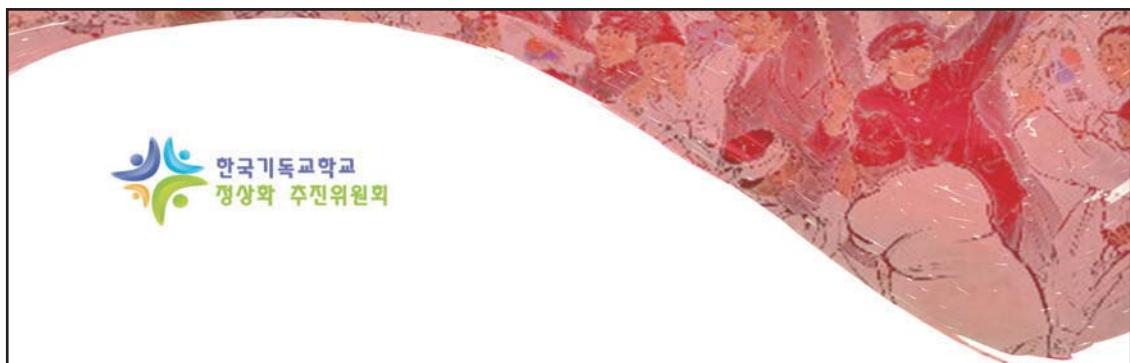
해방은 됐으나 한반도 북쪽은 자유를 다시 잃었다. 한국전쟁 후 훨벗었던 민족의 희망은 교육에 있었다. 영락교회가 초중고 8개 학교를 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교육을 통해 세대를 이어가는 복음의 전수가 필요했다. 그러나 학교 평준화정책이 시행되고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기독교 사립학교 건학이념 구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사적 재원으로 학교를 세웠으나 기독교교육을 비롯한 학교의 자율권은 갈수록 제한받고 있다. 영락교회는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기독교교육의 어려운 현황을 타 기독교 기관과 공동 대응해 가고 있다.

### 기독교학교들을 위한 3가지 계획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기독교학교대회’는 크게 3가지로 준비했다. 첫째, 2월 21일(목) 오전 10시 반 드림홀에서 ‘학술 연구 및 세미나’가 열린다. 3·1운동에서 기독교학교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항일했으며 이러한 전통 속에 있는 기독교학교가 현재 맞닥뜨린 과제가 무엇인지 연구해 온 내용을 발표한다. 둘째, 초교파적으로 열리는 전국기독교학교대회로, 같은 날 오후 1시 반 베다니홀에서 예배와 기도, 뮤지컬, 합창 등으로 진행된다. 장신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를 비롯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교목전국연합회 등 기독교교육 관련자들과 영락교회가 운영하는 8개 학교 교사들이 참석한다. 셋째, 교육자료 개발이 추진된다. 기정초 위원장인 김운성 목사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구국과 애국의 3·1운동을 이끈 기독교와 기독교학교의 역할을 알리고, 3·1운동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이 신앙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3·1운동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해 전국 교회들과 초중고등학교에 보낼 계획이다.

### 3.1운동, 나, 우리, 영락교회, 민족

‘나’에게는 ‘우리’를 위한 소명이 있다. ‘영락교회’에게는 ‘민족’을 위한 소명이 있다. 기독교교육이 심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3·1운동과 조국의 독립에 기여한 것처럼,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는 영락교회의 노력이 시대를 밝히는 작은 횃불이 되기를 소망한다. 숭고한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시대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때, ‘나의 소명’이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민족을 위한 소명’이 되기를 기도한다. **만남**



**3.1운동 100주년 기념**

# 전국기독교학교대회

**“3.1운동과 기독교학교”**

(1부 : 학술대회 / 2부 : 기독교학교대회)

일시 : 2019년 2월 21일 목요일(1부 : 오전 10시 30분/ 2부 : 오후 1시 30분)

장소 : 영락교회(서울 중구 수표로 33)



공동주최 :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영락교회

공동주관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학교연맹, 기독교학교연합회, 영락교회 학원선교부

후 원 : 기독교한남리회 차세대교육정책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육지원부(통합)

협 力 : 감리교 교목회, 교목전국연합회, 사학법인연합회, 사학정책포럼, 서울 종부 교목회, 연합 교목회,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ACSI Korea 등

문 의 :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02-6458-3456)

## 기도할 수 있는데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여….”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4년 전 기억을 되짚어봅니다.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버리신 어머니, 그 뒤를 이어 6개월을 더 견디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의 삶에 무게를 더해 주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럽기만 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부모님이 계시던 지역의 구역장님을 비롯해 교회식구들이 모든 장례일정을 주관해 주셔서 무사히 큰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감사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떠나시기 전의 일입니다. 정년을 몇 년 앞둔 아버지는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거의 반신불수가 되어 의사소통까지 어려워지셨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영락교회 구역장님을 비롯한 구역식구들은 이러한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구역식구들의 이러한 고마운 모습은 마침내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했으며, 저 역시 이미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동생과 올케의 권유로 몇 달 후 등록하게 됐습니다.

첫 예배에서 들은 말씀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며,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이며,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요동쳤고 설렘으로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은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가 내 인생자락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9년차 구역장으로서 사명을 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역식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든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가정과 이웃 그리고 구역식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복순 권사  
강동·송파교구  
52구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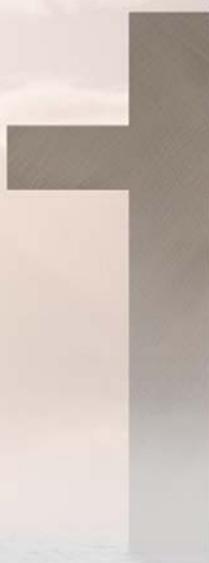
우리 구역에는 6세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매월 4째 주 중 구역장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리고, 나눔과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금요일 권찰공부시간에 목사님과 공부한 내용을 나누고 서로 느낀 점을 공유하면서, 「만남」도 전달합니다. 구역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세대는 직접 집을 방문해 간단한 안부 편지와 함께 「만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편으로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구역식구 중 한 분은 늘 나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7년 이상 교회에 발길을 끊었고, 대심방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며 ‘만남지’와 편지를 우편함에 넣어두었으며, 때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만나게 되면, 그분의 부담스러워하시는 눈빛에 움츠러들기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보류신청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성령께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감동을 주셔 날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주 전 만남지를 전하러 가는 중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회에 다시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후 우연히 그분을 또다시 만나게 돼 “교회에 꼭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겸연쩍게 웃기만 하시던 그분은 “알겠습니다” 하고 온유하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나의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로 교적에 넣을 사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 나오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은 집에 반명함판 사진이 있다며 며칠 후 우리 집 우편함에 사진을 넣고 가시면서 “새해부터는 교회에 꼭 다시 나오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내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구역식구를 좀 더 소개하고 싶어요. 구순의 연세에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 손녀를 믿음으로 키우며 언제나 소녀처럼 아름답고 기쁘게 사시는 분,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 지금은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에 힘쓰시는 분, 신앙적 갈등이 있었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교회内外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구역 식구들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벌써부터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시며,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송시가 귓전을 울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길 간구합니다. **만남**

# 이단의 거짓과 우리의 대처



임평호 목사  
사랑부, 영락사회복지재단

최근 들어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처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이단 대처를 돋기 위한 특강이 지난 12월 9일(주일) 신앙아카데미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만남」에서는 이단 대처 특강의 주요 내용을 이번 호에 게재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는 이단의 시도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에도 이미 이단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디도서 3:10)”는 가르침이 신약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도를 공격합니다. 이단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각종 모양으로 등장해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단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경계는 이단 분별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목회자와의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이단에 몸담고 있으며 여러 거짓된 진리를 주입받은 사람이 한 번 상담 받고 두 번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이제까지 물든 이단의 때가 다 빠질 수 없습니다. 이단은 ‘영적인 메르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1주일간 병원균에 접촉되어 메르스에 걸린 사람은 1주일이 아닌 수개월 동안 무균실에서 치료를 받아도 완치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반면에 메르스에 대해 조심하고 경계하며 메르스 환자 근처에 있지만 않으면 예방이 됩니다. 이단 역시도 빠져나오는 것과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예방은 강의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점 중의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이단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스스로의 공로나, 대가를 치르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 대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어린아이가 유리창을 깼을 때 그 책임을 아버지가 지면 어린아이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심으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단들은 이 구원의 진리를 훼방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무의식중에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단의 첫 번째 논리는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입니다.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특정 이단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십자가를 통해서는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때문에 이단에서는 그 사실을 교묘히 숨기고 논지를 흐리는 식으로 어물쩡 넘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논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단의 두 번째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기존 교회가 주장하는 십자가의 대속이 무효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지 또 다른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각기 여러 모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시험을 봄서 몇 점 이상 맞고, 한 명 이상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거나, 유월절

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거나, 단체에 얼마씩 현금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거나, 스스로 폭행을 당해 대가를 치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의 여러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기에 이런 여러 가지 엉뚱한 주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성경구절을 짜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논리를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하듯,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성도를 미혹합니다.

위조지폐를 감별할 때 수백, 수천 가지의 위조지폐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진짜를 중심으로 가짜를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다 퀘뚫어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가짜들은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더라도, 교역자와의 신뢰를 통해 함께 그것을 파악하며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불을 내게 되었을 때, 그 불 낸 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하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빨리 부모님을 모셔오거나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이가 119에 신고했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강해지기도, 약해지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앞으로도 여러 이단들이 위용을 떨치며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목회자와의 신뢰 속에 모든 영락의 식구들이 안전한 신앙생활을 가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 치매의 증상과 예방수칙

# Health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노년상 때문에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은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치매, 전두측두엽치매, 파킨슨병과 연관된 치매, 정상압수증, 알코올성치매, 레비소체치매 등으로 다양합니다. 퇴행성치매로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병, 레비소체치매, 전두측두엽치매입니다. 이와 달리 완치가 가능한 치매로는 수두증, 뇌종양, 경막하출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비타민B12결핍증, 신경매독, 우울증, 만성알코올중독이 있습니다.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최근 일어났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2)익숙하던 일을 못 한다. (3)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한다. (4)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동이 생긴다. (5)판단력이 흐려진다. (6)추상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7)물건을 엉뚱한 곳에 갖다놓는다. (8)기분과 행동에 변화가 온다. (9)인격의 변화가 온다. (10)자발적인 의지가 없어진다.

치매와 건망증은 어떻게 다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전체는 잘 기억하지만 세세한 부분을 잊는 것은 건망증이고, 사건 발생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사건의 광



정재면 교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신경과

범위한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은 치매입니다. 귀띔을 해주면 금방 기억해 내고 메모 등을 이용해 기억을 보완하려 노력하는 것은 건망증이고 귀띔을 해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의 기억력 저하를 모르거나 부인하는 것은 치매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는데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미안하다”면서 계산을 하면 건망증이고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화를 내면 치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8% 정도가 치매 환자로 여겨집니다. 치매가 유전되는지 궁금해하는데, 치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나 카다실 같은 치매는 유전이 가능하고, 혈관성치매는 가족력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원인의 치매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치매를 앓기 쉬운 원인으로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 노인은 우울증이 없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 가능성이 2~3배 높습니다. 스트레스도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에 관계되는 ‘해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손상이 누적되면 치매 위험성이 커집니다. 성별에 따른 치매 발생률을 보면, 전체 치매 환자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지만, 혈관성치매나 파킨슨병치매는 남자에게서 더 많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두측두엽치매는 남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치매의 전단계로는 경도인지장애가 있습니다. 이는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로, 인지장애가 대표적 증상입니다.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들 가운데 10~15%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됩니다.

치매 환자는 인지장애 외에도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조절되지 않는 감정, 현실에 없는 것을 지각하거나 오인하는 신경행동증상을 보입니다. 주변을 배회하거나 공격적인 행동, 수면장애도 나타납니다. 부적절한 식사 행동 혹은 반복적인 행동들도 나타납니다. 대소변 실수, 부적절한 성적 행동, 망상, 환각, 의심, 편집증, 우울증, 무감동증, 불안, 착각 같은 심리증상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세를 보일 경우, 신경과 혹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는 간이정신상태검사와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해 치매 진단과 그 정도를 판단합니다. 치매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뇌 컴퓨터촬영, 뇌자기공명영상검사, pet, 뇌파검사, 뇌척수액검사, 혈액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늦추는 약물은 아직 없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치매에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억제제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NMDA수용체길항제인 메만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정신병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경련제, 수면유도제와 같은 신경행동증상 개선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물치료 외에도 인지훈련, 인지재활, 반복적 경두개자기자극술,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요법, 회상요법, 생활습관 교육을 통해 증세를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3권(勸), 3금(禁), 3행(行) 치매예방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3권은 1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입니다. 3금은 술과 담배를 금하고,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행은 정기적으로 검진 받기, 가족/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60세 이상부터 매년 치매 조기검진 받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진인사대천명고’를 치매예방 생활수칙으로 권합니다.

**진** - 진땀나게 운동하라

**인** - 인정사정없이 담배를 끊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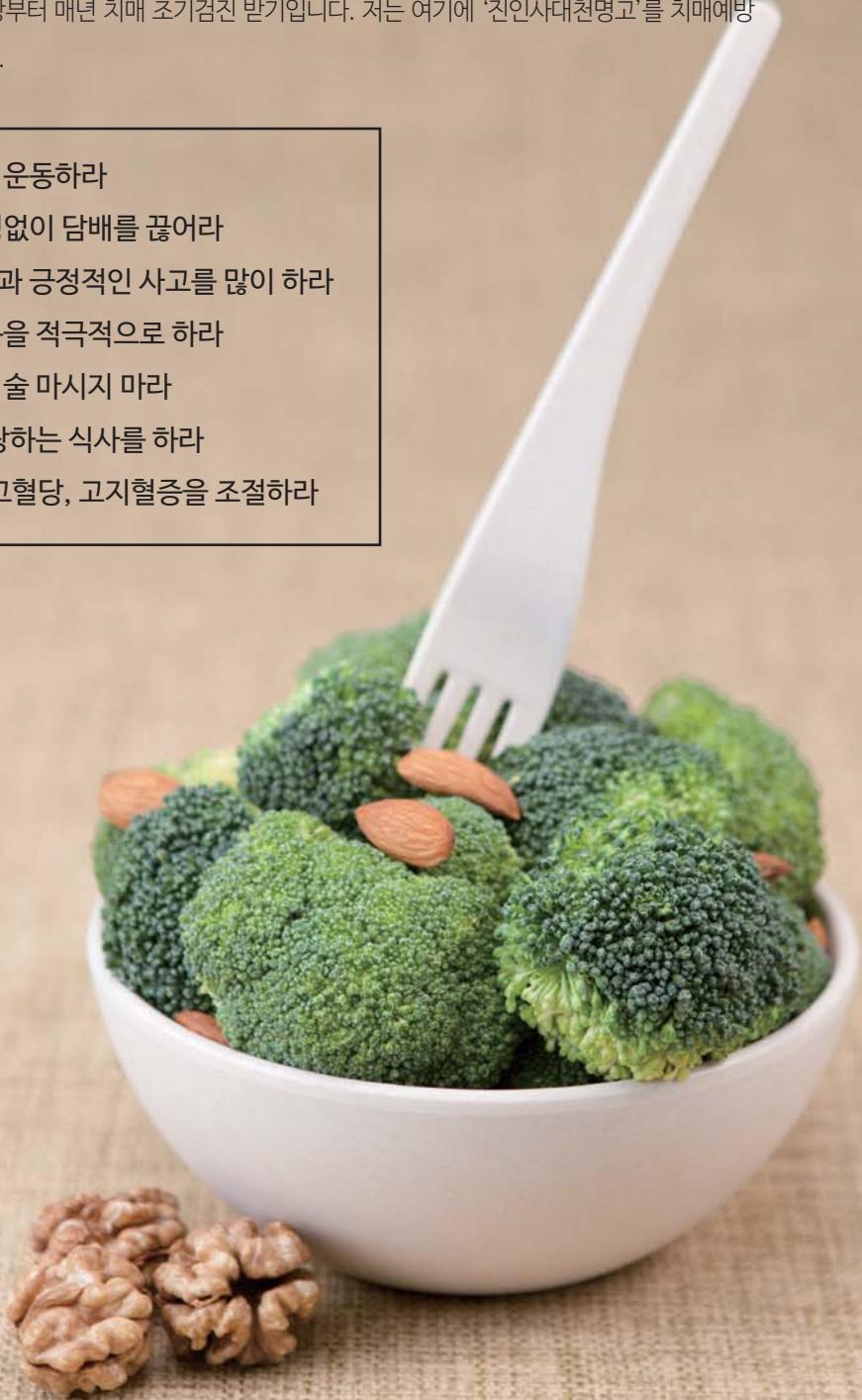
**사** -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라

**대** - 대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

**천** -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마라

**명** -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라

**고** -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조절하라



마지막으로, 치매에 좋은 음식을 권합니다.

뇌에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뇌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도 몸에 배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밝고 활기찬 생활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남**

#### ▶ 치매에 좋은 음식

- 1) 호두·아몬드·땅콩 등 짜지 않은 견과류
- 2) 기름기 적고 단백질 풍부한 흰색 육류  
(예:닭 가슴살)
- 3) 녹황색 채소
- 4) 고등어·꽁치같이 등푸른 생선
- 5)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과 채소

#### ▶ 뇌에 나쁜 음식

- 1) 과도한 동물성지방/트랜스지방
- 2) 지나치게 경제한 백미와 밀가루
- 3) 설탕·사탕 등 과도한 당분

#### ▶ 뇌활동 증진을 위한 생활 습관

- 1) 잡지, 신문, 책 읽기
- 2) 일기쓰기
- 3) 외국어 배우기
- 4) 십자말풀이, 카드놀이, 보드게임
- 5) 봉사활동 참여
- 6) 종교활동 참여
- 7) 친구, 친지와의 만남, 대화
- 8) 뜨개질, 악기 연주 등 취미활동
- 9) 영화 감상, 박물관 감상, 즐거운 운동
- 10)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의 학습 프로그램 참여



# 직장인통독반

## - 소그룹 통해 리더가 성장합니다

이번 호부터 ‘야곱의 우물가’ 코너에서는 영락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진솔한 모습, 소소하지만 따스한 우리네 일상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독자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통독반 1기는 2017년 8월 7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쁘다 해도 과장이 아닌 40대 직장 여성 9명으로 출범했습니다. 여러 교구에서 모인 우리는 새벽이나 출퇴근 시간, 점심의 자투리 시간, 늦은 저녁 시간 등 틈새 시간에 성경을 읽었으며 어쩌다 분량이 밀리면 주말에 보충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9명 모두에게 완독을 허락하셨으며 2기는 53명이 도전하여 41명이 완독했습니다. 2018년 봄에 3기가 개강했고, 10월 29일에 시작된 4기는 56명의 7개 소그룹으로 발전해 통독에 참여했습니다.

저의 작은 결심으로 시작된 통독은 세 명으로 늘었고 세 명이 아홉 명이 되었습니다. 통독의 유형으로 에스라성경통독 사역원에서 만든 ‘90일 성경일독’을 선택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성경과 통독교재를 함께 읽고 음원을 들으며 카카오톡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하루 평균 60분~90분이 소요되는 조금 난이도 있는 통독과정입니다.

직장인 통독반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믿음의 신앙공동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 안에는 공동체정신, 연합정신, 참여정신, 목적의식이 뚜렷했으며 영적 생명력이 살아 숨쉬어 균형 있는 영성을 갖기 위해 말씀묵상과 기도훈련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는 공동체 안에 많은 유익과 친밀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성경읽기를 삶의 우선순위로 지켜 행하는 것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내 안의 선포였고 말씀 안에서 삶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 앞에 먼저 머무르고 그분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통독을 계속하는 이유는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간절했고 성경이 그 첫 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내면의 안식이었으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시간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마음의 잡초를 제거해 주어 나의 의와 중심을 헤물어트려서 영적전투에서 영적무장할 수 있는 영적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조은하 집사  
노원교구

## 소그룹의 성공사례

좋은 소그룹의 성공사례를 보면 소그룹 안에서 세워진 리더가 양육 받아 성장하여 또 다른 리더가 세워집니다. 양육이 양육으로 이어져 리더가 리더를 낳습니다.

현재 총괄 리더로 섬기고 있는 저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겸손, 사랑, 관심 세 가지입니다. 통독 외에도 참가자가 들려주는 삶의 나눔에도 관심을 기울여 사랑을 담아 기도로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게 ‘리더의 역할과 본분’을 깨닫게

이 점차 누적되는 상황이 되면 포기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때 이 시점에서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며 비슷한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독했던 선배들의 체험담을 들려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완주할 것을 격려하면서 동행하여 완독률이 80~90%까지 됐습니다. 완독의 기쁨과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다시금 말씀 앞에 설 것을 다짐하게 합니다.

## 소그룹 리더의 역할

소그룹에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서 공동체 안의 성공과 실패 및 공동체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리더가 올바른 인식으로 본분과 원칙을 잘 지키는 역할을 다할 때 소그룹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나를 도울 자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었고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나침반이자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 전체를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여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의 삶’을 먼저 걷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 ‘신앙의 비전’을 찾게 하시고, ‘회복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90일 성경일독’에 도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함께 라서 가능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변화되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가정,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만남**



교회 ‘만남’ 카페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4여전도회 직장인 통독팀 멤버들

해 주셨고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총괄 리더로서 첫 번째 역할은 ‘90일 성경일독’의 개강 계획, 일독표 작성, 조편성, 조장선출, 리더미팅, 각 조 미팅주선, 완독 현황관리, 통독 참가인원 관리, 긴급 중보기도 공지, 4여전도회 소그룹보고 등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그날 읽을 분량과 음원을 리더그룹 카톡방에 공지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그 사항을 각 조에 재공지합니다. 이렇게 그날의 통독 일정을 시작하여 각 조의 리더들을 통해 통독 진행현황과 출석체크를 보고받고 전체를 총괄합니다.

통독 참가자 중 50% 정도는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합니다만 나머지 50%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여 읽을 분량

# 이제야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영혼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배우는 것이  
기쁘게 되었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때때로 주님과  
소통하는 기쁨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옆에 있는 백병원 의사입니다. 제 방에서 바라보는 영락교회는 늘 장  
엄해보였고, 남산을 배경으로 저녁노을이 내려앉으면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워서 지  
친 제 영혼에 큰 위안이 되곤 했습니다. 언젠가 영락교회에 출석하리라 마음먹은 했지  
만, 어언 사반세기가 지나 정년을 불과 삼년 남겨두고 이제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집안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학창시절 가난으로 힘들었  
지만, 돋독한 신앙을 가지셨던 외할머니의 눈물어린 기도와 격려에 힘입어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마치고 의사가 됐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 장로였던 남편은 제가 영의 눈  
이 뜨이도록 이제껏 인내심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을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형식적인 교인이었으며, 오랫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뒤늦게 영안이 열려 영락교회에 출석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결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외  
할머니, 남편,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과 기도에  
빚진 자입니다.

그 동안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간간이 제 마음 밭에 뿌려지기는 했지만, 얼마 전까지  
도 저에게는 천국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기쁨, 온전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대부  
분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마음 밭이 굳어있던 저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  
닫지 못했고, 어떤 때는 말씀의 씨앗이 돌밭에 떨어져서 썩어 나긴 했지만 흙이 거의  
없는지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 금방 말라버렸고, 또 어떤 때는 썩어 나서 자라다  
가도 ‘세상염려’라는 가시떨기에 눌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저는 인본주의자를 자처하며 사람의 양심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이나 형제, 다른 이들을 도우며 잘 살고 있다고 자기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혜경 성도  
종로·성북교구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으며, 이것이 저의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 **말씀으로 깨달은 믿음의 확신**

그러다가 올 여름 마음이 움직여 영락교회 수요기도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비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오게 됐습니다. 니고데모의 의문과 같이 저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적 진리 사이에 가로 놓인 장벽이 무너졌고, 저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목사님의 ‘요한복음’과 ‘제자’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영적 시선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으며, 영혼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기쁘게 됐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때때로 주님과 소통하는 기쁨도 알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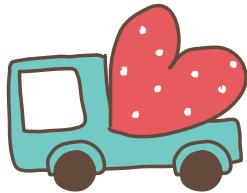
이제부터 저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쫓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따라 미력하나마 의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만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형제나 조카, 친지나 친구, 직장동료, 가까운 이들부터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순에 병약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식들의 우려와 달리 믿음 갖기를 결단하고 새신자 교육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생명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독수리가 그 깃털을 새롭게 자라게 함과 같이 주님께서 항상 새 힘을 주시리라 믿으며, 지치지 않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도움 주신 원로목사님과 사모님, 김경오 장로님, 오정숙 권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한없이 부족한 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남**

## 연탄 나눔 다녀왔습니다



월드비전 주관으로 우리 교회 고등부, 대학부 학생들 그리고 사회봉사부 집사님, 권사님들과 노원구 중계본동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지난해 성탄절을 사흘 앞둔 12월22일이었다. 사회복지학 전공인 나는 앞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출발했다.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곳은 높은 언덕에 있는 동네였다. 주로 어르신들이 주민인 이 동네에는 무너진 집들도 많았다.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회복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 이날 현장에서 느낀 것은 열악한 거주환경과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었다.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그 혜택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은 것 같았다. 나는 먼저



한수빈 성도  
대학부 44기



이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번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이분들이 감사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 정말 크다는 점이다. 감사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집을 찾아 갔을 때 그분은 우리가 연탄 나르는 것을 보고 너무 고생한다고 연신 감사하다고 하셨다.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일이다. 주는 것은 더욱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를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의 연탄 봉사에 감사를 표한 그분의 감사를 받으며,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번 봉사를 통해 교제의 기쁨을 누렸다. 고등부, 대학부 학생들과 집사님, 권사님 등 여러 세대가 함께하면서,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뻤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을 잘 몰라서 당황했지만,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다.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교제가 이뤄졌다.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육체적인 고단함은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참 감사한 하루였다. **안남**



## 교회는 넓고 봉사할 일은 많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살름을 전합니다.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얼굴들은 아마도 자원봉사부원들일 겁니다. 봉사자들은 보행자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지하주차장과 마당에서는 주차 안내로, 그리고 두 곳의 안내데스크를 비롯해 엘리베이터 앞과 많은 성도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식당에서 배식을 돋고 잔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실물 관리와 주일 환경팀, 구급환자를 위한 119팀과 꿈나무조가 교회 안팎의 드넓은 지역을 묵묵히 적은 인원으로도 땀 흘리며 봉사하는 바쁜 시간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차와 다과를 정성껏 제공하는 친교팀이 자원봉사부실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뤄집니다. 금요일에는 환경개선팀이 본당과 베다니홀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물론 이러한 봉사를 하다 보면 영육 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경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 주일 1부 예배 후에 자원봉사부실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건회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형찬 지도목사님의 은혜 넘치는 설교 말씀과 기도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어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봉사와 은혜



김영건 안수집사  
종로·성북교구  
자원봉사부 차장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자원봉사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이 넘쳐났다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한 봉사자들이 새로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호산나찬양대와 대학생, 자유인들로 구성된 근로장학생이 그분들입니다. 10여 명의 젊은 남녀 학생들이 차량 안내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으로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교회는 넓고 봉사할 일은 많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자원봉사자 모집 캠페인도 가졌습니다. 예상보다도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릴 때에는 새벽 미명부터 경건회를 가진 후 주차 안내를 위해 분



교통봉사와 봉사관 교회안내(오른쪽사진) 등 자원봉사자들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처음 만나는 얼굴들이다.

주하게 움직입니다. 다른 부서 항존지도 많이 참여해 새벽기도회가 더욱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는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봉사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디자인을 새롭게 좀 더 보강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을 견뎌야 할 봉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온성과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눈에 잘 띠는 소재를 사용한 복장이 필요합니다. 안내데스크와 식당에서도 품위 있는 옷차림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새해 소망과 비전 그리고 협조

영락교회의 비전 100년을 내다보면서 자원봉사부의 조그마한 소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의 인원 배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젊은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청년과 젊은 집사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욱 역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근로장학생 제도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점차 확대돼 나간다면 우리 성도들의 손길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경건한 예배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돋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교회 안팎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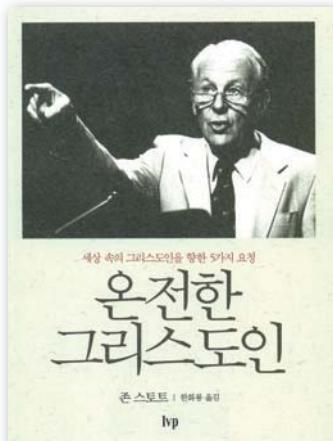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2, 3부 예배 때 교회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삼일대로변에 꼬리를 물고 장시간 대기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들의 통행과 안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제직들은 인근 유료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교회 지하주차장은 2 시간 이내로만 사용하셔서 좀 더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원봉사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자원봉사자 비율로 선진국 진입의 척도를 삼는다고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앞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이웃 사랑을 말없이 실천하고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환하게 밝혀 주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사 정신을 더욱 높이고 성경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자원봉사부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1~2) 만남

# 존 스토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다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복음으로 고민했던 사람**  
**존 스토트(1921~2011)**

서구 교회는 1910년 역사적인 에든버러 선교대회에서 거룩한 공교회적 연합을 통해 열정적인 증언공동체로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선포와 열망을 고백했다. 나아가 선교의 긴급성 강조와 이를 위한 전 세계적 선교적 연합의 요청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잘 드러내는 것이 이 대회의 유명한 모토인 ‘우리 시대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이다.

하지만 그러한 선교적 열정과는 달리 서구 교회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교회의 선교적 열정은 급격하게 식어져 갔다. 그 후 한 세기 동안 이어진 세상을 우리는 ‘현대사회(Modern World)’라고 부르는데, 이 현대사회는 이전에 없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었다(2차 세계대전,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많은 지역에서의 식민통치붕괴, 군비경쟁과 냉전시대, 경제 세계화의 진전, 중국의 부상, 전 세계적 이주의 증가, 급속한 기술 발전 등). 이러한 현대사회와 마주하며 교회는 교회 공동체와 선교의 의미를 다시 찾고자 노력해 왔다.

이중에서도 기독교를 둘러싼 현대사회의 지형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선교역사학자 앤드류 월즈 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기독교 중심축의 이동’이다. 20세기의 시작이었던 1900년 세계 기독교인의 80%가 유럽과 미국에 살고 있었지만 20세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기독교인 인구가 세계 기독교인의 60%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국가에서 기독교가 사회의 중심이 될 만큼 성장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의 중심축은 이동했으나 이동한 지역에서 기독교가 그 사회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양상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 및 아프리카 토속종교 등 ‘전통 종교의 발흥’이다.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다원주의 상황과 맥이 달아있으며 이는 기독교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의 헌신은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평일에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 이러한 사람의 삶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사적인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온통 번체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다.”

- 존 스토트 『온전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타 종교와 영성 경쟁을 벌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이다(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의 본질적 회복이 중요한 시대이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기독교의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이다. 기독교는 로마시대 때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 시대와 같이 소수종교 상황이 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 시대적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독교에 대한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다.
- ② 초대교회는 종교적으로 다원적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그러하다.
- ③ 기독교인이 소수자이다(한국을 예로 들면, 현재 대한민국 성년의 21%, 청소년의 3.8%, 청년의 2.1%가 그리스도인이며 상황적으로도 우호적이지 않다.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점점 소수화 되어간다).
- ④ 기독교 종주국의 변화 : 기독교 중심의 이동(북반구에서 남반구로 / 서에서 동으로)

이제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 그 자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적 의미와 능력을 삶의 전체 영역에서 다시 확인하고 증언해야 한다. 신앙은 주일뿐 아니라 일상으로,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자리(가정, 학교, 일터 등)에서 의미 있게 확인되고 증언돼야 한다.

존 스토트는 영국 교회의 목회자(All Soul's Church)이

자 복음주의 진영을 이끌었던 신학자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다. 그는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복음의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앞서, 깊이 있게 통찰하며 그 길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현대 기독교회의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글에서는 그가 1980년 영국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인 의대생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역설했던 다섯 번의 강의를 묶은 책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말해준다.

### **존 스토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존 스토트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모습을 다섯 가지로 알려준다. 첫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복종시키는 자들이다. 두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직업과 소명’의 통합을 건강하게 이루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섬김의 자세로 일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삶을 구성하는 일이란, 그 자신에게 “성취를 줄 뿐 아니라 공동체에는 유익을, 하

나님께는 영광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에너지를 쓴는 것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은 영적, 육적, 사회적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J. B 필립스의 말처럼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좁게만 보는 경우가 많다. 성경의 하나님은 종교적 삶에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온 영과 육체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인간 삶의 전반적인 일과 결혼, 가정과 문화, 국가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거라는 삶의 소명과 함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세상이 망가지고 부패해 갈 때 이를 책임지고 감당하는 부르심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책임을 지는 자들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모습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악에 젖어들기보다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내적 정화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의 악을 이기는 경건을 지닌 자여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더 큰 의로서 마음의 의를 품는 것이며,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더 넓은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는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더 고상한 야망으로의 부르심을 사는 것이다.

존 스토트가 제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다섯 번째 모습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서구 교회에서 선교적 열정이 점점 식어버리고, 제국주의적 선교로 인한 실패에 대해 비판이 높아지면서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선교 무용론까지 주창하는 이들이 교회에 등장하는 것을 일찌감치 마주했던 존 스토트 목사는 다가오는 시대에 거룩한 공의회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선교를 다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바로, 구약의 하나님은 온 민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부르고자 하셨던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복음서의 예수는 세상을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성령

은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선교의 성령이셨으며 서신서의 교회는 “복음이 이르렀고, 그것을 받았고, 그 복을 널리 퍼뜨렸던” 선교적 교회였음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경의 기독교는 이 선교적 완성을 보여주는바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선교의 신앙임을 역설한다. 이를 통해 거룩한 공의회로서 교회의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교적 신앙으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와 역사 를 품되어 어느 한 가지에만 사로잡힌 편협적 포용이 아닌 성부·성자·성령 삼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임을 역설한다.

책의 말미에 주어진 존 스토트의 제언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는 안전하고, 점잔 빼고, 아늑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도피적인 편협한 종교가 아니다. 성경의 기독교는 안정을 지향하는 우리의 감춰진 본성을 깊이 뒤흔들고 있다. 그 뒤흔들은 폭발적인 힘이며, 중심에서 밖으로 뻗어 나가는 힘이다. 그것은 우리를 협소한 자기중심으로부터 끌어내고, 섬기고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세계로 투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를 향한 이 현신을 표현할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만남**



백성우 목사  
교육전담

2019년 영락화랑의 주제는 ‘예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를 주제로 한 명화와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영적, 인간적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참된 제자도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림 선정과 집필은 박정관 목사(문화연구원 소금향 원장)가 맡습니다.

## 베드로, 일생을 통해 변화된 사람



카라바조의 ‘베드로의 부인’ 부분

예수의 제자 중 가장 극적이면서 굴곡이 심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이는 그의 삶에는 네 번의 전환점이 있다.

① 정체성 인식 : 베드로는 밤을 새운 작업에서 완전히 실패한 뒤 “깊은 데로 가서”(눅 5:4) 다시 시도해 보라는 예수의 권고를 받아들이고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 때문에 그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분과 “죄인”인(눅 5:8) 자신 사이의 극명한 간격을 보게 됐다.

② 부름의 삶 :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자 놀라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예수의 치유, 물 위를 걸으신 것, 몇 조각의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것과 같은 기적을 목격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처럼 물 위를 걷기도 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마 16:16) 고백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물에 빠진다든지, 예수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는(마 16:23) 책망을 받기도 했다. 어딘가 불안정하며 설익은 상태였다. 결국 그는 예수의 처형 직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말하자면, 예수를 통해 펼쳐지는 현실과 그의 개인적인 상태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다.

③ 성령 강림 : 그런 베드로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흥미롭게도 예수가 그들을 떠난 다음이었다. 성령이 강림한 뒤 그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두려움 없이 하나

님의 말씀을 전했고(행 2:14-41), 예수처럼 기적을 행했으며(행 3:7; 5:15-16; 9:40), 고난에 굴복하지도 않았다(행 12:5).

④ 세계인을 위한 기독교 :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여러 곳을 다니던 어느 날 환상을 통해 그릇에 담긴 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동물들과 “잡아 먹으라”고 하는 소리를 보고 들었다. 그것이 세 번 반복된 뒤, 그가 있던 곳에 로마 군의 장교 고넬료가 그를 초대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왔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지만, 그 환상 때문에 그는 그 초대에 응했다.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첫 성령 강림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고넬료와 같은 비유대인이 신자가 되자 여러 지역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행 15장) 이방인이 신자가 될 때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즉, 유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 이 회의에서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 바울과 함께 할례제도 폐지에 찬성했고, 이에 힘입어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 결과 기독교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세계인의 종교가 됐다.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열린 삶을 산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의 일생을 통해 계속된다. **만남**

-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 ▶ 2월 3일은 설 연휴로 상영을 쉽니다.

# MOVIE 2월의 상영작

## 천지창조 (The Bible: In the Beginning..., La Bibbia, 1966)

감독 : 존 휴스턴

주연 : 스티븐 보이드, 에바 가드너, 리처드 해리스, 존 휴스턴,  
피터 오톨, 마이클 팍스, 조지 C. 스콧

상영시간 : 2시간 45분



## 애니 (Annie, 1982)

감독 : 존 휴스턴

주연 : 에일린 퀸

상영시간 : 2시간 10분

등급 : 전체관람가



하나님이 혼돈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빛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으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난다.

이들은 직접 땅을 일구어 고단하게 살면서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 키우지만, 형제인 아벨을 죽인 카인은 이마에 죄인의 표지를 받고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하여 자손을 퍼뜨리고 살게 되었다.

노아는 하와의 또 다른 아들, 셋의 후손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점점 포악한 일만 일삼는 것을 보고, 한탄하여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물로 멸망시키려 하나, 노아의 가족들만 살려주고자 그에게 방주를 지어 홍수를 면하게 한다.



(상)10일 (하)17일

1933년, 공황기의 뉴욕 시립 아동 보호소에 억만장자인 워벡스(알버트 피니 분)의 여비서 그레이스(G앤 레인킹 분)가 찾아와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에 워벡스와 함께 지낼 아이를 찾던 중 고아 '애니'를 발견한다.

워벡스는 애니의 맑고 건강한 모습에 애정이 들어 양녀로 입양하려 하나 애니는 부모가 그리워 거절한다. 워벡스가 애니의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현상금을 걸고 캠페인을 벌이자 수많은 가짜 부모가 나타나고 고아원 원장은 동생과 그 애인을 동원해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애니를 찾아간다. 하지만 그들이 가짜임이 밝혀지며 애니를 구출하기 위해 고아원 꼬마들, 워벡스 가족, 연방수사본부까지 동원해 애니를 찾아내기에 이르는데…….



24일

## 교회소식



###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해’ 새해 신년예배, 임직식 겸해 드려

2019년 새해 첫날 본당에는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1~2)라는 새해 교회표어를 걸고 신년 예배 및 임직식이 있었다. 1부 오전 9시 30분, 2부 11시 30분에 드린 신년예배는 본당 및 부속 예배처를 가득 채운 가운데 새해 첫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다. 이날 ‘길 갈 때 할 일’(민 10:33~36)라는 말씀을 선포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앞에 가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따라가며, 매 순간마다 기도 했던 모세의 기도(35절, 36절)를 본받아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순종과 기도의 불을 지피는 한 해가 되자”고 권면했다.

신년예배 2부에서 진행된 임직식에서는 신임 권사 76명, 서리 남집사 2,350명(신임 85명 포함), 여집사 2,494명(신임 124명 포함), 구역장 1,116명, 구역권찰 2,161명, 교회학교 교사 765명, 찬양대원 1,005명이 임직을 받았고 임직자들은 기립하여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할 것을 주님께 다짐하였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우리도 주의 종 모세처럼’ 2019 신년기도회

2019년 신년기도회가 새해 벽두인 1월 1일(화)부터 3일(목)까지 수유리 영락기도원에서 열렸다. 흑한 의 추위에도 신년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새해를 맞아 매일 새벽과 오전, 저녁기도회를 드리며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한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기도회 마지막 집회였던 3일 저녁기도회의 설교를 맡은 김운성 위임목사는 ‘내 종 모세(민 12:1~16)’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처럼 고비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주의 종이 되어 기도의 불을 지피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순종하고 결단하며 더 열심히 기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신년기도회의 매 순서마다 기도원 본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하며 세계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와 영락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악한 자와 어려운 환우,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남으로 복된 해, 승리하는 해가 되길 뜨겁게 간구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기도에 불을 붙인 영락의 성도들 1월 한 달간 특별금요기도회로 모여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라’는 주제 아래 ‘2019 기도대각성 운동’을 위한 특별금요기도회가 1월 한 달간 진행된 가운데 첫 번째 특별금요기도회가 지난 1월 4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금요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하여 김운성 위임목사의 설교, 박규성 목사의 기도 인도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본당 1,2층을 성도들로 가득 메운 가운데 영락 공동체에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음을 느끼게 했다. 사해 첫 금요기도회이기도 했던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올 한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는 각오로 각자가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정말 뜨겁게 부르짖으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기단에 선 김운성 위임목사는 “지상 주차장은 물론 50주년기념관 지하5층 주차장까지 만차일 만큼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실 때 앞에 주차한 차가 막아있어도 다른 사랑으로 기다려 주는 영락인이 되길 바란다”며 “품위와 절제 속에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고 강조했다. 기도대각성 운동을 위한 특별금요기도회는 1월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2019년 새해 첫 주 토요일,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2019년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토요일이었던 지난 1월 5일 원근을 마다하지 않고 새벽잠을 깨우며 부모와 함께 예배당을 찾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영락의 가족들 모두의 소망을 위해 김운성 위임목사의 축복기도와 김태균 목사의 인도로 1월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김운성 목사는 ‘그 수하에 복종하라(창 16:1~16)’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라며, 현재 우리의 삶,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여건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견디어 이겨나가고 회개하는 믿음을 지켜나가자”고 권면하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의 열매 맺기를 기다리자”고 메시지를 전했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2018년 은퇴식 장로 6명 등 제직 264명 은퇴

작년 12월 30일(주일) 찬양예배 시 본당에서는 제직들의 은퇴식이 있었다. 이날 은퇴자는 항존직 18명(장로 6명, 안수집사 12명)과 권사 138명, 서리집사 남 69명, 여 39명 등 모두 264명이다.

은퇴식은 김운성 위임목사의 선포와 기도 후 그동안 현신적으로 교회를 섬긴 은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은퇴자를 대표하여 김의환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우리 교회의 리더십 교체는 한국 교계에 신선한 바람과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지도에 순종하며 영호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 사역에 협력하신 성도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비전 100년을 향한 영락 공동체가 영적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은퇴의 소감을 전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2018년 성탄축하예배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2018년 성탄축하예배가 지난 12월 25일(화) 7시 1부 예배와 2,3부는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드려졌다. 특별히 2,3부 예배는 찬양팀의 인도로 10여 분간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시작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물로 표현한 영상물이 예배의 여는 영상으로 상영됨으로써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이 날 성탄축하예배의 성경본문인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2부는 중등부 문소이 학생, 3부에는 유년부 송드림 어린이가 봉독을 맡아 성도들의 눈길을 끌었고 찬양대의 찬양 후에는 문화선교팀 소속 스티그마가 준비한 드라마를 통해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다 호적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지상의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하자!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전하며 성탄을 맞이 한 영락의 전 성도들에게 참된 왕으로 오신 주님께 참된 순종을 드리자고 성탄 메시지를 선포했다.

1부 예배 시 교육부 교역자들의 성탄 봉헌송을 시작으로 2부는 고등부 찬양대, 3부는 유치부 찬양대의 봉헌송이 이어져 성탄의 기쁨을 더해주었고, 성탄영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예

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작은 하트모양의 핫팩을 손에 들고 함께 찬양을 부르며 서로를 축복했고, 핫팩을 이웃에게 선물로 나누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취재 정다은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2018년 성탄음악회, 다채로운 찬양으로 성탄의 기쁨을 알리다

시온찬양대가 주관한 2018년 성탄음악회(Promise of Peace)가 지난 12월 24일 (토) 베다니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시온찬양대 및 영락시온페스티벌 오케스트라&밴드가 출연한 이번 연주는 지휘자 조형민 집사의 지휘 아래 전통 클래식부터 칸타타, 현대적 팝 스타일까지 다양한 장르의 찬양 음악으로 구성되어 전 연령층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시온찬양대 총무인 조진하 집사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연주를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어렵고 각박한 요즘의 시국에서도 예수님이 사랑이 한줄기 빛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연주회의 소감을 전했다. 객석뿐만 아니라 입장석마저 가득 메운 성도들은 회중찬양을 함께 부르며 성탄의 밤에 동참하였다.

취재 이현지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사회봉사부

### 쪽방촌 주민에게 성탄 선물 나누기



사회봉사부는 작년 12월 21일(금)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등대교회(담임목사 김양옥)를 통해 이 지역 쪽방촌 주민 330여 명에게 겨울 점퍼를 나누어 주었다. 등대교회는 우리 교회 사회봉사부가 5~6년 전부터 후원해 오던 교회로서 창립 초기 교인 10여 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100여 명이 모이는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으며 남, 여 노숙자 15명이 거주할 수 있는 ‘노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월드비전 ‘난방지원 사업’에 연탄 2,000장 후원

한편 작년 12월 22일(토)에는 월드비전 ‘난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노원구 중계본동에 위치한 ‘무

지개마을교회(담임목사 김석구)’를 통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 저소득층 13가정에 연탄 2,000장을 후원했다. 이날 사회봉사부 임원과 실행위원들은 고등부, 대학부 학생 25명으로 구성된 봉사자들과 함께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연탄을 배달했다.

### 중구 관내 불우이웃 위한 라면 전달



작년 12월 11일(화) 2018년도 부장인 임종술 장로를 비롯한 사회봉사부 임원들은 중구청을 방문하여 관내 불우이웃을 돋기 위한 라면 200박스를 전달했다. 교회의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가수 에릭, 이웃사랑 실천

인기그룹 신화의 리더 에릭(본명 문정혁 성도)이 지난 12월 12일 사회봉사부에 쌀 1,250kg, 라면 79박스를 전달하였다. 가수 에릭은 연말마다 사회봉사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제공 사회봉사부



## 제2여전도회, 상승교회 현당예배 2년여 건축기간 거쳐 현당

제2여전도회가 추진하여 총 건축비용 4억8천만 원이 투입된 상승교회(경기도 고양시 소재) 예배당 현당예배가 작년 12월 14일(금) 경기도 고양시 제1공병여단 109대대 영내에 위치한 상승교회에서 열렸다. 상승교회 예배당은 지난 2017년 9월 11일 기공예배를 드린 후, 예상치 않은 건축 현장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년여의 건축 기간을 거쳐 이날 현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입당식은 개회사와 제막식을 마친 후, 이진웅 목사(여단 군종실장)의 인도로 2018년도 선교부장 정천우 장로의 기도와 김희순 권사(제2여전도회장)의 성경봉독,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특송 후 최승도 목사가 설교말씀을 전했다.

선교부 국내선교차장 박진배 안수집사의 건축경과 보고에 이어 정천우 장로가 해당 부대장에게 열쇠를 증정했고, 최승도 목사의 봉헌기도와 봉헌선언 후 축사와 답사, 기증서와 감사장 증정 및 인사가 있은 후 최승도 목사의 축도로 현당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전도훈련 수료식과 2019년 상반기 개강안내

선교부 전도훈련팀에서 실시한 제32기 토요전도훈련과 제10기 화요전도훈련이 13주의 과정을 거쳐 작년 12월 2일과 11일에 각각 수료식을 거행하여 115명과 46명이 수료를 하였다.

전도폭발훈련은 친교와 전도, 제자훈련, 건강한 교회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초교파적 훈련으로 매년 두 번 상, 하반기(3월과 9월)에 개강한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입술을 떼기 힘들어 했던 분들이 훈련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더 분명해지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들을 수료식마다 듣게 된다.

3월초에 시작되는 2019년 상반기 훈련에도 더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생명을 넓어 기르는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제공 이광소 집사(토요전도폭발훈련 총무)



## 제1회 권사회 찬양대 정기연주회 개최

작년 12월 8일(토)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는 권사회(2018년 회장 장경자 권사)와 권사회 찬양대(대장 문경숙 권사) 주관으로 권사회 찬양대의 첫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박규성 목사(권사회 지도목사)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이번 연주회(지휘 홍권옥, 반주 박은하)는 권사회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모아 '주여 평화주소서'를 비롯한 3곡을 플루트와 협연한 가운데 은혜로운 합창을 선사했다. 이날 연주회는 은퇴권사 찬양대와 남성 합창단 조이풀시너스의 협연, 권사회 임원들의 난타 연주가 곁들어져 객석의 흥을 돋우며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이어진 2부 공연에서 권사회 찬양대는 캐럴송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곡들을 선보이며 객석의 청중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권사회 찬양대의 지휘를 맡은 홍권옥 권사는 권사회 창립 5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염원이었던 첫 연주회를 열게 되어 감사하며 감동과 은혜의 멋진 연주회로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고등부 학부모 초청예배 2019년 고등부 주요 사역 소개

고등부(부장 김동욱 장로)는 2019년 표어를 교회 표어에 맞추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고등부'로 정하고 학부모들을 초대하여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학부모 초청예배를 지난 1월 13일(주일)에 드림홀에서 드렸다. 올해 고등부 주요 사역인 '학생회 및 특활반 활동', '2019년 겨울수련회(1월 24일~26일, 영락기도원)', 'YES 2019 제자훈련(6월 1일~7월 6일 예정, 매주 토요일 50주년기념관 503호)', 'YES 2019 비전트립(8월 예정)' 등의 사역일정을 설명하고 학부모들과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격려를 부탁했다.

고등부는 135대 학생회와 미디어반, 바울성경반, 문화연구반, 호산나반, 워십댄스반, 연극반, 영고찬 찬양대반, 이삭줍기반, 학생기자반을 비롯한 9개 특활부서가 고등부 주일예배(주일 오전 9시30분~11시, 드림홀) 직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까지 기념관 7층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취재 최운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새가족 환영

등록일(2018년 11월 25일~2019년 1월 6일)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1월 25일	김이골	16	036		조예슬	12	000
	문유진	08	000		박지영	07	005
11월 29일	황지아	06	031		이규희	06	000
11월 30일	김하준	05	049		천수진	04	098
12월 2일	유춘성	07	015		김서원	14	016
	여의현	11	061		구신우	15	009
	김병철	09	058		이루아	04	098
	김길수	12	004		김지수	02	041
	김광천	07	044		유예슬	04	052
	정문숙	03	000		유하늘	04	052
	권선양	16	045		이서진	13	033
	신동호	04	063		계주호	02	048
	김영애	06	062		김리원	14	031
	김민우	06	038		김리나	14	031
	최두환	13	030		구서우	15	009
	최윤선	05	032		서봄	05	020
	전경예	11	061		송자홍	02	000
	김찬진	06	062		문명근	02	000
	허윤서	10	028		권숙란	18	000
	이하은	90	888		이명희	02	000
	정시유	07	064		박수정	09	047
	고서인	04	068		김준영	17	000
12월 3일	윤수영	01	052		이종현	09	038
12월 9일	이석순	05	029		김가온	04	076
	임인옥	18	020		한영숙	05	000
	이달순	14	048		홍성순	17	000
	박성찬	08	000		김경옥	15	000
	이수희	08	000		장원자	05	000
	오안근	03	031		김희진	04	000
	이종진	10	035		오은희	02	000
	박봉희	08	000		정선영	12	020
	박종림	14	048		김인경	17	000
	공미화	14	048		손유경	06	000
	박종건	14	048		서아름	02	000
	홍경희	05	000		이용대	09	008
	이승원	17	000		김민지	01	000

# Welcome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2월 23일	강지혜	04	005	1월 1일	전재량	04	098
	나기창	01	043		김우람	04	098
	김현숙	16	028		조민희	04	098
	안수현	10	000		배고은	04	098
	이계순	12	027		현성인	04	098
	이승연	18	034		김상민	04	098
	윤미리	04	000		박성율	04	098
	황태준	14	000		황윤정	04	098
	신율호	03	031		유보라	04	098
	이유나	09	026		노진석	04	098
12월 30일	권혁일	04	098		권혜빈	04	098
	정연희	04	098		이예진	04	098
	강승훈	04	098		윤효진	04	098
	노대웅	04	098		황하은	04	098
	박민지	04	098		김상은	04	098
	전병주	04	098		김주영	04	098
	김형찬	04	098		강승민	04	098
	방현주	04	098		김혜원	04	098
	조은애	04	098		노하준	04	098
	조두형	04	098		전은성	04	098
	천지현	04	098		강주원	04	098
	김연주	04	098		전은설	04	098
	신연주	04	098		최예나	04	098
	최재선	04	098		전은결	04	098
	조익천	04	098		노하담	04	098
	서이슬	04	098		강예원	04	098
	박성인	04	098		조유안	04	098
	신중건	04	098		최하준	04	098
	임상수	04	098		권시윤	04	098
	김미현	04	098		이예은	04	098
	김성광	04	098		신지온	04	098
	임민국	04	098		노주은	04	098
	이성재	04	098	1월 6일	배리은	04	034
	최대환	04	098		윤중운	10	000
	이효준	04	098		김주원	16	052
	조현우	04	098		오하윤	10	027

## 세례·입교, 유아세례를 축하합니다

### 세례·입교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입교	박승은	17	025
	최준영	09	066
	최준우	09	066
	박유상	10	012
	김영균	04	098
	안예나	14	064
	이예은	10	029
	최효빈	11	012
	최수빈	07	031
	김준상	03	046
	마경연	13	022
	김가은	14	017
	서상준	02	015
	유화평	05	059
	김하준	17	012
	이재은	12	028
	김준영	12	051
	김지훈	12	051
	송우승	18	039
	김민주	10	024
	강영승	11	011
	명금준	09	056
	이승준	06	054
	김태현	16	038
	이승찬	11	020
	김혜진	13	034
	강채은	10	067
	박재영	06	054
	김하영	10	057
	류인성	17	004
	강경호	01	052
	김나영	07	038
	최재현	10	033
	박예은	02	035
	이지아	05	052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세례	김상훈	13	007
	이세영	17	013
	김성원	13	003
	강하영	05	040
	류서현	10	056
	신혜림	18	015
	이찬혁	10	053
	오준석	06	070
	박서영	13	023
	강서윤	06	048
	김민서	07	047
	조윤찬	15	041
	양승욱	09	001
	박지혜	04	059
	정준경	16	049
	정용원	04	003
	조승빈	06	003
	어서현	04	068
	성한동	07	018
	서고은	12	032
	김민주	12	042
	박미영	11	048
	조수현	08	065
	오민우	02	006
	김은선	02	006
	박현수	09	015
	이경석	80	888
	박세환	70	888
	김무선	11	042
	김승환	02	027
	유상윤	13	033
	유현영	16	020
	장은영	09	023
	최윤정	01	032
	유주만	14	009

세례·입교일(2018년 12월 9일)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세례	박태현	09	015
	오성균	08	011
	정민재	12	032
	박수정	17	008
	박윤기	01	017
	김한별	06	006
	신석민	04	082
	김주형	09	016
	백순옥	01	036
	조남인	01	036
	양태길	04	020
	손수혁	02	075
	이유림	80	888
	이시현	03	005
	권주아	10	012
	천윤영	17	048
	박우진	04	052
	박다현	06	045
	성민수	11	021
	이순자	16	058
	권병우	10	012
	정홍연	14	065
	한수지	10	003
	박진희	10	062
	이슬기	09	011
	양맹자	10	051
	윤서진	80	888
	강현아	12	033
	차윤숙	17	050
	정봉학	10	057
	유영희	03	034
	양세희	13	023
	이장원	90	888
	최영화	02	016
	배수진	18	035

# Congratulations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세례	이영훈	18	035
	김대성	11	029
	정인기	05	047
	정선혜	10	057
	신형근	11	041
	유승현	06	009
	심노심	10	026
	강윤희	04	069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세례	김경숙	06	019
	김아람	10	020
	하은영	05	052
	이창호	10	016
	김기영	05	021
	송혜련	05	055
	곽윤희	03	011
	이다경	80	888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세례	이창용	10	017
	이택경	10	017
	김장겸	01	030
	조승연	01	036
	이승준	80	888
	이현중	60	888

## 유아세례

유아세례일(2018년 12월 23일)

이름	교구	구역
임지수	06	003
정노아	10	057
김다엘	03	033
정시현	02	066
이한별	18	025
유승현	13	004
이하준	18	023
진수현	12	053
모사랑	08	006
최로희	13	024
엄유정	04	052
이수아	04	056
김찬희	12	014
안지안	08	061
이시우	06	019
정도현	10	029
김서윤	15	007
전다엘	03	037
이서연	16	049

이름	교구	구역
이은찬	08	014
최하은	08	002
최예은	08	002
안하온	02	050
손다온	04	014
김재이	06	038
방태양	09	037
고도현	12	029
김라희	11	039
이루나	09	011
서예준	09	003
신지안	16	014
이은성	03	039
황현	04	098
김승채	09	052
백지애	16	054
박온유	07	061
장예준	03	004
이율	03	018

이름	교구	구역
김담윤	06	011
김준우	06	039
박재희	10	022
황지아	06	031
고서인	04	068
허윤서	10	028
이하은	90	888
정시유	07	064
윤수영	01	052
김리원	14	031
김리나	14	031
유예슬	04	052
유하늘	04	052
계주호	02	048
김지수	02	041
서봄	05	020
이루아	04	098

## 2019년도 제직부서 부·차장

(밀줄은 유임)

당회					
	서기 이창민	부서기 박일환			
교육부					
	부장 이영철	공수일	하석렬	최성준	이명춘
선교부					
	부장 김순미	박영일	김태영	정우영	최은영
북한선교부					
	부장 흥영남	유승우	고두선	권기용	
의료선교부					
	부장 박일환	이동우	정광윤		
사회봉사부					
	부장 나선희	심상일	손창일	조성희	

<b>목 양 부</b>				
	부장 김재완	김금성	최범용	목홍균
<b>전 도 부</b>				
	부장 박순덕	김재을	이태식	박영식
<b>제자양육훈련부</b>				
	부장 양인성	김홍범	오동희	이진하
				이희준
<b>음 악 부</b>				
	부장 이종오	한덕호	고서규	송재봉
<b>새 가 족 부</b>				
	부장 박성만	임해문	조성권	양기섭
<b>상 담 부</b>				
	부장 김두형	이일호	권철	박찬현

경 조 부			
	부장 <u>심규주</u>	이해왕	신진식
친 교 부			
	부장 <u>김진성</u>	양성환	김용선
재 정 부			
	부장 <u>박홍준</u>	장시욱	조태연
서 무 부			
	부장 <u>신은정</u>	조은봉	김석곤
시 설 관 리 부			
	부장 <u>김명권</u>	함윤호	허영춘
홍 보 출 판 부			
	부장 <u>정경섭</u>	송영백	강상진

자원봉사부						
	부장 오계환	모연섭	김영건	임우섭	한상복	이성환
IT 미디어부						
	부장 김지언	조준호	이세림	김호진		
예산위원회						
	부장 차재능	오현택	한웅식			
감사위원회						
	부장 박종민	김형진	박동현	박경도		
행정처		기 도 원				
	행정처장 이종근		기도원장 김영철			
제직회						
	서기 차영균	부서기 최숙자				

## 영락역사자료

2018년 12월 기증 현황 (41건)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이덕염 (타교회)	12/26	- 1969년 1월 이덕염 영락교회 주일학교 증등부 교사 임명장
김명자 집사 (노원교구)	12/26	- 1983년 영락교회 35년사 외 영락교회 관련 도서간행물류 2건 - 2000년~2007년 장년 성경공부 안내 팜플릿 외 박물류 13건 - 2001년 한경직 목사 1주기 추모 예배 순서지 1건 - 2004년 제44회 산상기도회 여름부흥성회 3차 박위근 목사 일반음성테이프 8건
서영희 은퇴권사 (노원교구)	12/26	- 한경직 목사 관련 신문류 1건 - 임영수 목사 특별새벽기도회 외 일반음성테이프 6건

### 사료를 기다립니다

1. 교회의 창립 관련 사료
2. 영락교회 규정집 및 행정장정 사료
3. 교회의 행정조직 및 제직부서의 변천사료
4. 교구 조직과 사역자의 사료

문의 : 역사자료실 ☎ 02)2280-0357

## 교역자 동정

### 이관형 목사 본 교회 사임, 분당 아름다운교회로 부임

청년부와 목회행정, 중구·용산교구를 맡아 사역해오던 이관형 목사가 작년 12월 23일자로 본 교회를 사임하고 분당 아름다운교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지난 2014년 본 교회에 부임한 이관형 목사는 그동안 자원봉사부, 홍보출판부, 청년부, 젊은이예배, 목회행정과 인천교구, 중구·용산교구를 맡아 사역해왔다. 분당 아름다운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beautifulchurch.com](http://www.beautifulchurch.com)



## 목회력

## 부고

# 2月

2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3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10일(주일)	제직부흥회 2차, 제직회
17일(주일)	심방준비회
17일(주일)~22일(금)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
18일(월)~23일(토)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24일(주일)	새가족환영회, 사회봉사주일

### 김철우 원로장로 별세



김철우 원로장로가 지난 12월 3일(월)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31년 중국 길림성 통화현에서 출생한 고인은 1960년대 대광중·고 교사로 교편생활을 하다가 1970년대부터는 기독실업인으로 활동하였다. 우리 교회에서는 1974년 집사 안수, 1978년 12월 본 교회 제 13회 시무장로로 장립되어 2001년까지 당회원으로 섬기면서 재정부장, 대학부장, 교육부장, 5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 대광·보성학원 이사, 영락학원 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현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겼고 2002년 1월에는 본 교회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이밖에도 국제기드온협회 서울캠프 회장, 서울노회 회계, 장신대 이사 등을 맡아 활발한 교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고인의 장례예배는 12월 5일(수)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김운성 목사의 집례 가운데 교회장으로 드려졌으며, 같은 날 장지인 영락동산에서 박지운 목사의 집례로 하관예식이 드려졌다. 고인은 생전 부인 홍경표 은퇴권사와의 사이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 2019년 목회 분담표(목사)



**백성우 목사**  
교육 전담  
대학부, 교사교육부, 교회교육원



**김태균 목사**  
강서 · 구로 · 양천  
경조부



**김응신 목사**  
노원  
제자양육훈련부, 한경직기념사업회  
교회역사위원회



**박재현 목사**  
마포 · 영등포  
목회행정  
교회역사위원회



**박규성 목사**  
강남  
목양부, 권사회



**황광용 목사**  
새가족부 전담  
새가족부



**차동혁 목사**  
서초  
예배부, 음악부, 안수집사회



**최승도 목사**  
고양 · 파주  
선교부(국내, 해외), 1남/1여



**김정희 목사**  
강북 · 도봉  
사회봉사부, 평생대학  
사회복지재단



**박지운 목사**  
서대문 · 은평  
전도부, 4남/4여, 4부예배



**최한윤 목사**  
관악 · 동작 · 금천  
북한선교부, 자유인예배



**박성은 목사**  
용인 · 화성  
선교부(군선교, 의료)  
2남/2여, 호산나 찬양대



**김충섭 목사**  
안양 · 수원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갈보리 찬양대



**남정열 목사**  
인천  
IT미디어부, 홍보출판부



권혁일 목사

강동 · 송파  
영성, 영락수련원  
영락기도대

김형찬 목사

중구 · 용산  
자원봉사부, 4부예배  
임마누엘 찬양대

조두형 목사

성동 · 광진  
선교부(농어촌, 문화)  
3남/3여  
베들레헴 찬양대

전병주 목사

동대문 · 중랑  
목양부(제직교육, 교재)  
베다니 찬양대



최재선 목사

청년부

강승훈 목사

종로 · 성북  
상담부, 가정사역  
시온 찬양대

노대웅 목사

고등부

임현우 목사

성남 · 분당  
친교부, 갈릴리 찬양대



박동진 목사

영락수련원

임대순 목사

중등부  
학원선교

이대혁 목사

아동부

이정훈 목사

설악수양관



장이삭 목사

국제예배부

황재영 전도사

영락기도원

# 2019년 신임교역자 프로필

## ■ 부목사



권혁일

부산대 국어국문  
장신대 신대원  
신양교회(교구, 영성, 복지)



김형찬

한양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  
장신대 신대원  
충주효성교회(교구, 행정, 청년)



조두형

서울대 윤리교육  
장신대 신대원  
과천교회(교구)



전병주

영남신대 사회복지  
장신대 신대원  
이문동교회(교구, 행정)



최재선

명지대 경영  
장신대 신대원  
국일교회(교구, 청년)



강승훈

경북대 교육학  
장신대 신대원  
동안교회(청년총괄, 수행)



노대웅

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영은교회(교육전담, 청년)

## ■ 전도사



조익천

서초교구, 목양부(구역공과)  
장신대 신학/장신대 신대원  
높은뜻하늘교회



신중건

종로·성북교구, 평생대학  
동의대 법학/장신대 신대원  
정릉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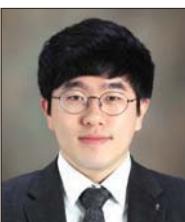
김성광

관악·동작·금천교구, 청년부(겸임)  
아신대 선교영어학/장신대 신대원  
광장교회



임민국

청년부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장신대 신대원, 영세교회



이효준

새가족부  
백석대 기독교교육학  
장신대 신대원, 응암교회



이형진

강서·구로·양천교구, 예배부(기도, 통역)  
휘튼 칼리지 기독교교육  
장신대 신대원, 영락교회(IWE)



김우람

선교부  
중국상해복단대 어언문화  
장신대 신대원, 신촌강로교회



현성인

IT미디어부  
서울장신 신학/장신대 신대원  
명성제1교회



**최정규**  
안양·수원교구, 선교(해외, 문화)  
영남신대 신학/장신대 신대원  
영락교회(중등부)

**박성율**  
대학부  
명지대 철학/장신대 신대원  
서소문교회

**백현준**  
노원교구, 고등부(겸임)  
총신대 신학/장신대 신대원  
영락교회(고등부)

**노진석**  
강북·도봉교구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영남대 작곡과/장신대 신대원  
홍광교회

## 편집장 레터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만남」은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통권 541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의(公義) 실현과 교우들 간의 소통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적극적 참여는 「만남」을 건강한 기독교 잡지로서 구실을 다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문화의 풍성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육간 건강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교우와의 만남), 영성이 흘러넘치는 교회(: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꿈을 꾸는 교회(:교회와의 만남)는 다음세대 성도들을 위한 교회의 위대한 선물이요, 자산입니다. 이를 교회의 모습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것들은 금년 우리교회의 표어인 '생명을 날아 기르는 교회'

와도 상통합니다.

「만남」은 기독인의 정론(正論)으로서, 성도님들의 지속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영적 선물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1~2)

2019년 새해, 「만남」 편집진들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저희에게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으로써 품어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장 이동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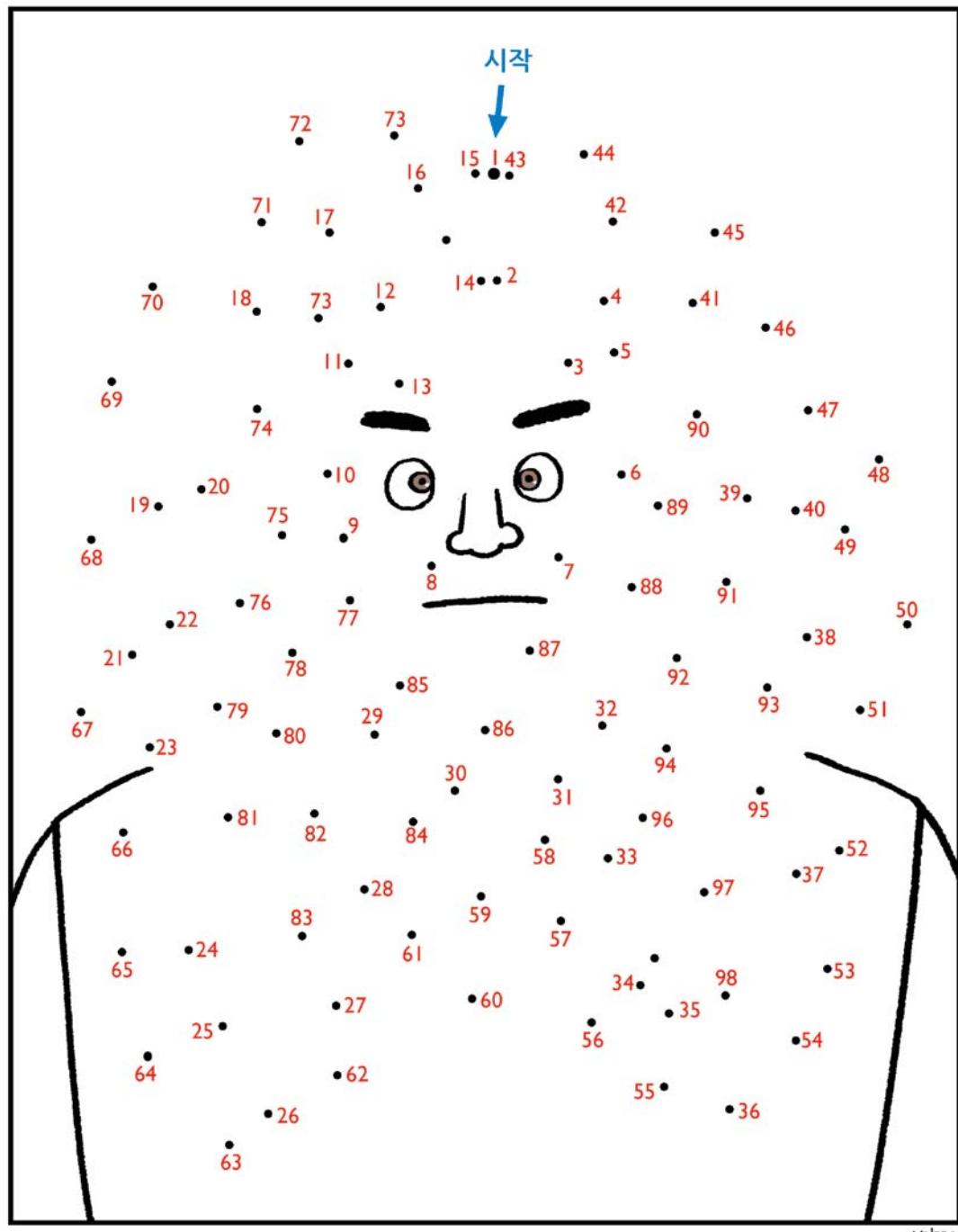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 점잇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사사기 13~16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부터 43번까지의 숫자를 이어보세요.

합정이 되는 숫자와 점을 조심하세요~^^



# 2019년 교역자 목회분담표

■:목사 □:전도사 ●:파트목사 ◎:준전임 전도사

예배	예 배 위 원 회	■ 차동혁 ■ 박지운(4부)	■ 권혁일(기도) ■ 김형찬(4부)	□ 윤기철 □ 신중건(4부)	□ 이형진(기도)
	음 악 부	■ 차동혁	□ 조익천(한마음찬양반)		
	금 요 찬 양 팀	□ 박상엽 □ 이성형 □ 신중건	국 제 예 배	■ 장이삭 ◎ 김유진	
교육	교 육 부	■ 백성우	□ 이성형		
	영 · 유아 · 유치부	□ 서루디아(유치부)	◎ 김한나(유아부)	◎ 서예림(영아부)	
	사 랑 부	● 임평호			
	아동부 (C e b C)	■ 이대혁(소년부)	◎ 최혜원(초등부)	◎ 조현우(유년부)	
	중 등 부	■ 임대순 ■ 백성우	□ 이성형 ● 홍만우	고 등 부 ■ 노대웅 ● 이종실 □ 박성율	□ 백현준 □ 박상엽
	대학부 (베드로부)				
	청 년 부	■ 최재선 ■ 백성우	□ 임민국 □ 김성광	교 회 교 육 원 ■ 백성우	◎ 유태완
교구 목양	교 사 교 육 부	● 유인선		◎ 유태완	
	목 양 부	■ 박규성	■ 전병주	□ 이영옥	□ 이동규 □ 조익천
	제 자 양 육 훈련부	■ 김용신	■ 김충섭(소그룹)	□ 장윤재	□ 노진석(소그룹) □ 임민국
	새 가 족 부	■ 황광용	□ 이효준	전 도 부 ■ 박지운 □ 진영채	
	경 조 부	■ 김태균		친 교 부 ■ 임현우	
	평 생 대 학	■ 김정희	□ 신중건	상 담 부 ■ 강승훈 □ 어정현 ◎ 이영미	
	기 도 원	□ 황재영		설 악 산 수 양 관 ■ 이정훈	
선교	영 락 수 련 원	■ 권혁일	■ 박동진	□ 신대군	
	선 교 부	■ 최승도(국내, 해외)	■ 박성은(군선교)	■ 조두형(농어촌)	□ 김우람
	의 료 선 교 부	■ 박성은		■ 조두형	□ 최정규(해외)
	북 한 선 교 부	■ 최한윤	□ 김학수	학 원 선 교 ■ 임대순	
	1남선교회 1여전도회	■ 최승도		3남선교회 3여전도회 ■ 조두형	
	2남선교회 2여전도회	■ 박성은		4남선교회 4여전도회 ■ 박지운	
	안 수 집 사 회	■ 차동혁		권 사 회 ■ 박규성	
사회	사 회 봉 사 부	■ 김정희	□ 이요셉		
목회 행정	목 회 행 정	■ 박재현	□ 예진용	I T 미 디 어 ■ 남정열 □ 심순종 □ 현성인	
	자 원 봉 사 부	■ 김형찬		홍 보 출 판 부 ■ 남정열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 교회역사위원회		■ 김용신		

## 교구(목사&전도사)

1교구/ 강남	■ 박규성	□ 윤기철	10교구/ 종로 · 성북	■ 강승훈	□ 신중건
2교구/ 강동 · 송파	■ 권혁일	□ 장윤재	11교구/ 노원	■ 김용신	□ 백현준
3교구/ 성동 · 광진	■ 조두형	□ 예진용	12교구/ 강북 · 도봉	■ 김정희	□ 노진석
4교구/ 중구 · 용산	■ 김형찬	□ 이동규	13교구/ 서초	■ 차동혁	□ 조익천
5교구/ 관악 · 동작 · 금천	■ 최한윤	□ 김성광	14교구/ 인천	■ 남정열	□ 어정현
6교구/ 강서 · 구로 · 양천	■ 김태균	□ 이형진	15교구/ 성남 · 분당	■ 임현우	□ 신대군
7교구/ 서대문 · 은평	■ 박지운	□ 박상엽	16교구/ 고양 · 파주	■ 최승도	□ 이요셉
8교구/ 동대문 · 중랑	■ 전병주	□ 심순종	17교구/ 안양 · 수원	■ 김충섭	□ 최정규
9교구/ 마포 · 영등포	■ 박재현	□ 이영옥	18교구/ 용인 · 화성	■ 박성은	□ 진영채

## 음악부 : ■ 차동혁

임 마 누 엘 찬 양 대	■ 김형찬	호 산 나 찬 양 대	■ 박성은
시 온 찬 양 대	■ 강승훈	갈 보 리 찬 양 대	■ 김충섭
베 들 레 헨 찬 양 대	■ 조두형	갈 릴 리 찬 양 대	■ 임현우
베 다 니 찬 양 대	■ 전병주	교 회 음 악 아 카 데 미	■ 차동혁

## 영락화랑



카라바조(Caravaggio), 유화, 94×125.4cm, 1610

## 베드로의 부인(否認)

The Denial of Saint Peter

복음서는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고별하는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여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1610년에 그린 『베드로의 부인』은 여종이 병사에게 베드로를 가리키며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제가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다.